

월드뷰

WORLDVIEW

09

SEPTEMBER 2017

ISSN 2234-3865



동성애·동성혼 본질에 대한 물음

COVER STORY

데이빗 훅셋 교수와의 대화:
문학과 해석, '반지의 교제'를 중심으로

COLUMN

- 동성애 반대도 과유불급
-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 범죄가 사랑으로 둔갑된 군대내 성추행(동성애)사건
- 대학 내 동성애 운동과 대응 방향
- 미국 대기업의 동성애 지지 실상과 대응 방안



신선하게 지킨 음식을
가장 맛있는 때 먹게 하고
필요한 재료는 바로 찾아주고
가족이 좋아하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당신에게 페밀리허브는
연제나 가족 같은 것

가족을 이어주는 허브
삼성 CHEF COLLECTION
페밀리허브



모델명: RT40M9993SV1 |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QR코드로 자세한
제품소개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냉장고를 관리하는
|푸드알리미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열 수 있고, 재제량의
보관기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오리밥을 보고 드는
|푸드레시피

사용자의 밑에 반응해
다양한 레시피를 음성으로
알아줍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주문하는
|푸드쇼핑

필요한 식재료를 담아
바로 주문, 결제가
가능합니다



온도 편차가 적어 신선한
|미세온도기술

냉장고 내부 온도변화를
최소화하여 식재료의
신선함을 지켜줍니다

“책의 길을
막지 말라.”



誤讀

C. S. 루이스 지음
홍종락 옮김



T. 333-5161 <http://www.hsbooks.com>

홍성사



Edu Letter from SICA #5 기록한 영향력

기록한 영향력은 교회 다니는 성공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록한 영향력은 영향력 있는 자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록한 영향력은 기록함으로 결정됩니다.

자리가 낮아도 기록하면 기록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리는 높는데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은 영향력입니다.

기록한 영향력은 기록해 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기록한 영향력은 교회 잘 다녀서 권력을 얻고 유명해지고 싶다는 소원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기록한 영향력은 돈과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힘입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기록함을 먼저 선택하겠다는 우선순위의 반영입니다.

SICA는 그저 교회 다니는 돈 많은 사람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SICA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의 소중함을 지켜낼 수 있는 탁월한 예비자들을 키우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한 영향력은 자리의 높이나 크기가 아니라 영향력의 내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SICA는 모든 과목을 성경의 기초 위에 가르칩니다.
- SICA는 기독교 고전교육(Trivium)으로 가르칩니다.
- SICA는 이중언어(영어+국어)로 교육하며, 고전어(라틴어)를 가르칩니다.

유·초·중등·고등 입학설명회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4시, 장소: SICA(서초구 양재동 363)

여주캠퍼스 고등 입학설명회 2017년 9월 23일(토) 오전 10시, 장소: 경기 여주시 하거동 711-16

입학상담 02.557.7710(양재) | www.sicakorea.org
031.883.7713(여주)



제34회 기독교학문학회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학문

2017.11.4(토) | 성균관대학교

대 학 원 생 및 분 과 별 발 표 논 문 을 모 집 합 니 다

논문발표신청마감 9.29(금) 저녁 7시 ▶ 홈페이지 신청 www.worldview.or.kr

발표논문제출마감 10.13(금) 저녁 7시 ▶ 메일제출 gihakyun@daum.net

대학원생 발표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논문상을 시상합니다.

학회주제와 관련한 논문에 발표우선권이 있습니다.

마감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발표를 제한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기독교학문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문의 02-3272-4967 (학회)

Contents

SEPTEMBER · 2017



COVER STORY

커버스토리

데이빗 혹셋 교수와의 대화:
문학과 해석, '반지의 교제'를 중심으로 | 이영근 교수 9

SPECIAL

발행인의 글

동성애 · 동성혼: 본질에 대한 물음 | 김승욱 6

대표주간

동성애 반대도 과유불급 | 손봉호 16

기획칼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 제양규 19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 조영길 22

범죄가 사랑으로 둔갑된 군대내 성추행사건 | 김영길 27

대학 내 동성애 운동과 대응 방향 | 남승호 30

미국 대기업의 동성애 지지 실상과 대응 방안 | 한정화 36

COLUMN

연재칼럼 1

동성애에 대한 책갈피 | 송인규 44

연재칼럼 2

동성애에 대해 막연한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 이정일 49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20

“죄 사함”에 대한 고백 | 김현수 53

WORLD VIEW

2017년 9월호 | WORLDVIEW | 통권 207호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387201-01-121691 예금주: 세상바로보기



데이빗 혹셋

WORLD VIEW



CULTURE

손봉호의 유머 모음	
다시 돌아온 시한폭탄 손봉호	15

CONTENTS

루터의 도시를 가다 # 19	
마르부르크 추태화	58
광고	
VIEW를 추천합니다 이부형	60

NEWS

재정보고	62
후원명단	63
사무국 소식	64
9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64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동성애 · 동성혼 본질에 대한 물음

김승욱 (발행인)

9월 호의 표지인물로는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그로우브 시에 소재한 그로우브 시티 대학 영어과 교수로 재직 중인 데이빗 혹셋 교수를 소개합니다. 그로우브 시티 대학은 기독교 진리와 그리스도 중심의 학식과 폭넓은 세계관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시키는 목적을 지닌 인문학 중심 대학입니다. 국내 기독교학자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있지만, 외국의 기독교학자들의 견해는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한하는 기독교학자들을 가능한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방한한 데이빗 혹셋 교수로부터 성경해석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어보고, 예로 톨킨의 “반지의 제왕: 반지의 교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호 특집으로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개헌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동성결혼의 문제는 동성애와 다른 측면을 내포합니다. 동성간 결혼을 허용할 경우 출산을 저하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입양으로 자녀 문제를 해결한다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도미니크 레스비렐이라는 여성은 16년 전 키우던 고양이 듀렉과 결혼했는데, 고양이가 죽자 큰 슬픔에 빠져 이제 강아

지 트래비스와 재혼하기로 결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려견을 대신하여 죽지 않는 로봇이 인간 곁을 지킬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로봇공학과 AI와 빅 데이터 세 가지가 결합하면 동성간 결혼이 아니라 로봇과 인간의 결혼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구상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성애 ·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주관하는 서명운동에서 지난 8월 19일 현재, 총 247개 대학의 2,551명의 교수들이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금식기도에 동참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개헌특위 소위에서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고치려고 했던 것을 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에 예정하고 있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이 문제가 계속 사회적 관심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에 이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제양규 한동대 교수의 글을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지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죄인을 사랑해야 하지만, 같

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동성애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앞에 나서면 반기독교세력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동성애를 수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표칼럼을 맡고 계시는 손봉호 장로의 주장과 같이 이미 세가 기울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영길 변호사는 성적지향(동성애 성행위)은 그 자체로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회·국가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결코 법률로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세계는 지금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에 이미 에이즈 감염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위험국가'가 되었습니다.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92%가 동성간 성행위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청소년 층에서 놀라울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군과 대학에서의 동성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의 김영길 대표로부터 군대내 동성애 문제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언어학과 남승호 교수로부터 대학내 동성애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동성애가 많이 노출되는 것이 기업의 광고입니다. 특히 포춘 500대 기업들이 대부분 성적 성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문서화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한정화 한양대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인규 합동신학교 명예교수로부터 동성애와 관련해서 꼭 읽어봐야 할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해외 저자가 쓴 두권의 표준서로 존 스토틀 목사의 Same-Sex Partnerships?: A Christian Perspective와 스탠리 그렌츠(Stanley J. Grenz)의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의 응답」을 추천했습니다. 한국인 저서로는 기독교윤리연구소 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예영커뮤니케이션, 2011년)과 이요나, 「리애마마 동성애 탈출」(키네마인, 2015년)를 추천했습니다. 동성혼에 대한 비판서로는 Glenn T. Stanton and Bill Maier, Marriage on Trial: The Case against Same-Sex Marriage and Parenting (2004)를 소개했는데, 이 책들에 대한 간략한 리뷰와 함께 평가를 했으므로, 일독을 권합니다.



글 | 김승욱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 (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사학회 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간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인양생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중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실무진	곽우정	월드뷰 편집간사, 장신대 신대원 졸업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원장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중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익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생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만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감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문소영(명지대 교수), 문준호((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연구부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성철 (명지대 교수), 이재희 (가천대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데이빗 혹셋 교수와의 대화: 문학과 해석, '반지의 교제'를 중심으로

데이빗 혹셋 교수 / 대담 이영근 교수

아래 내용은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데이빗 혹셋(David Hogsette) 교수가 강의한 내용과 이영근(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교수가 그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데이빗 혹셋 교수는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그로우브 시에 소재한 그로우브 시티 대학 영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글쓰기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그로우브 시티 대학은 기독교 진리와 그리스도 중심의 학식과 폭넓은 세계관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시키는 목적을 지닌 인문학 중심 대학이다.) 혹셋 교수는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미국과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았고, 많은 곳을 방문할 기회도 가졌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학사(1990), 석사(1992), 박사학위(1996)를 마쳤고 연구 관심 분야는 19세기 영문학(로망스 시인), 미국 남북전쟁 이전 문학, 비평이론, 기술을 이용한 학습 등이다. 취미로 동양무술(가라테)을 수련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인 아내와 함께 그로우브 시티에서 살고 있다.

이영근 교수(이하 이영근) | 무슨 일로 한국을 방문하였나?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개설한 2017년 여름학기 교양강좌 강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였다. 한국 방문은 이번으로 두 번째다. 2012년 여름에도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초청받아 '문학 해석과 성경 속 비유 언어'를 주제로 수업을 가르쳤고 J.R.R. 톨킨에 관한 공개강의를 한 바 있다.

이영근 | 그렇다면 이번 강의의 주제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달라.

두 과목을 가르쳤는데, 2주간에 걸쳐 월~목, 오전(10-12:30)과 오후(14-16:30)에 각각 문학과 글쓰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상은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학생들과 대학생 청강생들이었다. 오전 강의의 주제는 '문학과 해석 및 문학비평: J.R.R. 톨킨과 C.S. 루이스의 작품을 중심으로'였고 오후는 '글쓰기와 비평적 사고: 학술에 세이와 목회사역을 중심으로'였다. 문학 수업을 위해서 특별히 첫주에는 톨킨의 작품 "반지의 제왕" 중 "반지의 교제('반지원정대'로 알려짐)"를 학생들이 미리 읽고 수

업에서 논의와 토론을 벌였고, 둘째 주에는 루이스의 “침묵의 행성 밖에서”를 읽고 토론하였다. 마지막 날인 7월6일(목) 저녁 7:30에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공개강좌(제목: “도피, 은혜, 그리고 믿음의 논리: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지속적인 관련성”)를 진행했다.

이영근 | 문학강좌 중 ‘해석’에 관련된 주제가 있었는데 신학생들에게 해석 능력이 왜 중요한가?

해석이란 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인데 비평가들과 문학 이론가들은 종종 해석의 산물을 의미와 의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저자가 문맥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의의’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 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글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위해서는 신학-역사적인 것이든 현대의 것이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해



석이다. 즉, 성경을 주의 깊게 해석하되 과거 성경학자들이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신학 공부를 위해서는 해석 능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해석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설교 중에 문학과 문화를 해석하여 예시를 드는 데는 해석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성도들에게 대중문화에 대해 잘 가르치기 위해서도 좋은 해석기술이 필요하다. 문화를 바르게 해석하고 관여하는 모범을 보이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대중문화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며, 오히려 올바른 신학과 성경적 관점에서 문화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나아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그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생각이나 사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통찰하며 평가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신학 공부와 목회 사역 양면에서 좋은 해석 능력은 요긴하다.

이영근 | 해석 능력이 어떻게 신학생들에게 공부 뿐 아니라 미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석기술을 적용할 참고서적으로 톨킨의 “반지의 제왕: 반지의 교제”를 선택하였는데, 그것은 판타지 장르에 속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책이 아닌가. 특별히 판타지를 택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판타지는 문학 비평계에서 저급한 문학 형태로 무시되거나 평가절하 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민속이나 동화 이야기, 또는 아동문학이나 대중적인 오락 또는 상업 문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 뛰어난 당대 작가들 중에도 판타지 형식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토니 모리슨, 글로리아 네일러, 마가렛 앳우드, 레슬리 실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즈가 그렇다.

어살라르그앵이 “판타지는 모든 픽션의 할머니이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판타지의 뿌리가 고대 신화이며 고전 서사시와 중세 로망스 문학에서 판타지 이야기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판타지는 결코 새로운 형태의 상업화한 저급 문학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의 “현실”을 넘어서는 내러티브로서 우리가 역사에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한 이후로 인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존재해왔다. 뿐만 아니라 판타지는 현실의 평범함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문화적 또는 역사적 상대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진리와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절대적인 것을 조사하고, 표현하고, 대표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판타지는 모든 문화와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보편적 호소력과 장구함을 지닌다. 물론 특정한 문화적 특색을 떨 수도 있겠지만 판타지는 여전히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독자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매일의 생활 너머에 있는 경이를 맛보며 때로는 일상의 평이함 그 밑에 깔려 있는 마법과 놀라움을 경험하도록 부추김을 받기도 한다. 다시 말해 독자에게 이상향을 그려볼 수 있게 해줌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금의 현실을 새롭게 건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판타지에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톨킨은 판타지가 우리에게 회복과 탈출과 위안을 준다고 하였다. 판타지 속에 나타난 초월적 비전은 현대의 회의주의 속에서 실종된 가치와 도덕과 진리를 드러내어, 정도에서 벗어나 고통으로 가득차고 무정한 이 세상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영근 | 판타지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몰랐다. 그렇다면 판타지 -특별히 톨킨의 “반지의 교제”-가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톨킨은 잘 알려진바대로 중세문학을 전공한 영문학 교수이자 여러 언어에 능통한 문헌학자이다. 그런 그가 “반지의 제왕”을 쓰면서 중간계라는 주 세계와 구별되는 2차 세계를 창조하고 가상의 언어들 만들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상의 역사를 그린 (그런 점에서 톨킨을 “부 창조자 Subcreator”라고 부른다)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책에는 장소와 지역에 대한 상세한 묘사, 혈통과 가문들과 그들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서술, 문화와 그 역사들, 그리고 그 문화들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풍성한 기술이 가득 차 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허구임엔 틀림없지만 톨킨은 판타지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실제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처럼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1부에 해당하는 “반지의 교제”의 핵심 주제는 우정이다. 제목부터가 그렇다. 여기서 교제는 우정과 관련 있는 말이다. 톨킨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성경적 개념인 코이노니아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에게 교제란 영적인 요소였고 그런 점이 책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교제는 단순히 친근한 우정 이상의 것으로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에 대한 헌신에서도 동일한 사람들 간의 긴밀한 영적 유대이다. 바로 이런 점을 책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초반부에 악의 위협에 맞서 호빗들이 뭉치는 장면과 후반부에서 중간계의 다른 종족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악을 패퇴시키는 더 높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톨킨은 C. 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 The Four Love”에서 정의한 네 가지 사랑 중 하나인 필리아(친구 간 애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친구의 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것, 친구를 섬기는 것,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친구를 위해 거기 있어 주는 것으로 보았다. 친구 간 사랑으로 연합되는 이러한 교제는 엘론드 회의에 참석한 여러 종족들이 용

서의 필요성을 배우고 지난 불만들을 불식시키며 악의 위협에 맞서 하나로 뭉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이들 우정의 특징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데 있고, 각자가 중간계의 유익이라는 더 큰 선을 위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데서 이 우정이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친구 사랑의 특징을 또 다른 단계의 사랑인 아가페적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책속 등장인물들을 통해서도 성경의 인물이나 가치, 혹은 교훈들을 연상시키는 면들이 있다. 예를 들면, 톰 밤바딜은 그리스도적인 인물로 묘사되는데, 호빗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다른 어떤 창조물들보다 오래되었고 고대의 과거사를 알고 있으며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닌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정작 톨킨은 그런 점을 부인한다. 책속에서 그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며 순전한 기쁨과 깊은 영적 즐거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며, 프로도에게 앞으로 간달프에게 일어날 일을 이상으로 보여주고 호빗들의 원정 여행에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한편 교제에 동참한 이들에게 다른 이의 은혜와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다른 이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반지의 교제”에서 보여주는 선과 악의 개념과 섭리이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확인시켜준다. 우리 모두가 악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악이 있다면 절대적 의미에서의 선 또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선과 악이 있다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잣대, 곧 도덕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런 도덕법이 있다면 도덕법을 내신 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도덕법은 마음과 합리적 사고를 지닌 도덕적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생각하지 못하는 비도덕적 자연의 힘은 도덕법을 낼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도덕법 제정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도덕법 제정자가 하나님이다. 바로 이 존재를 무신론자들이 세상에 너무 악이 많아서 ... 하는 주장을 펴면서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면 우주에는 목적이 있고 자연에는 설계(design)가 있기에 우리가 그 설계를 연구하면 도덕성, 곧 합당한 행위를 분별해 낼 수가 있다. 이것이 자연법 이론이다. 자연적 설계에 따라 작동하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고 자연적 설계를 어기면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다. 폭력을 뜻하는 영어 낱말 “violence”는 당위를 범한다(violate)는 뜻을 기억하라 - 어떤 것들의 올바른 상태를 위반하기 전에 먼저 설계에 의해 당위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현실에 절대적인 당위, 즉 사물들이 객관적인 의미에서 “어때야만 한다”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이나 “악”을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연법 외에도 하나님은 도덕법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앞에서 언급한 논리로 선은 악에 앞서 존재한다. 둘 사이에 영원한 균형이란 없다. (톨킨은 도덕적 이원론자가 아니었다.) 예컨대, 병(disease)이 있기 전에 편안함(ease) 즉 건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병은 건강이 결핍한 상태), 가난이 있기 전에 부가 있어야 하며 (가난은 부의 결핍 상태), 약함이 있기 전에 강함이 있어야 한다 (약함은 강함의 결핍 상태). 더위와 추위를 생각해 보라. 어떤 것에 우리가 추위를 더할 수는 없다. 오직 열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에 악을 더할 수는 없다. 악은 그 자체로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악은 선의 결핍일 뿐이다. 악은 선이 먼저 존재한다는 논리를 갖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선은 도덕법

에 해당되고 자연법에 따라 작동하는 것인 반면 악은 도덕법에 반하거나 자연법을 거슬러 작동하는 것이다.

톨킨은 기독교 유신론자로서 이러한 선과 악의 정의에 따라 작품을 썼는데 “반지의 제왕”에서도 동일한 우주론을 본다. 그 안에 에루(Eru), 곧 The One 혹은 일루바타르라 부르는 선하고 영원한 하나님 같은 인물이 있는데 소설 속에는 선과 악의 원리와 예들이 넘쳐난다. 선은 먼저 존재하고 현실을 결정하며 조화와 일치와 평화를 가져온다. 우정과 교제는 사랑과 용서에 바탕을 둔다. 선을 보여주는 예들은 사이어, 톰 밤바딜과 골드베리 (타락 전 에텐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 조화로운 결혼, 죄와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리벤델과 엘론드의 집, 엘론드 회의와 교제/동맹의 형성, 회의에서 프로도와 호빗들이 보여준 희생적인 행동 등. 반면 악은 영원하지도 미리 존재하지도 않고 앞서 존재하는 선에 대한 반역으로서 존재하게 되었고 선의 결핍으로 볼 수 있다. 부조화, 불일치, 전쟁 또는 평화에 대한 침략을 가져온다. 결국 이러한 합리적인 세계관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관적이거나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 도덕법 제정자에게서 오는 도덕법으로 부여된다. 도덕법이야말로 우리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영원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반지의 제왕” 속에는 섭리를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앞서 톨킨이 기독교 유신론적 세계관에서 글을 썼다고 했는데 그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다스리며,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자기 영광과 목적을 위해, 또한 그가 지은 사람의 선을 위해 쓰신다. (롬 8:28)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프로도가 결국 반지를 갖게끔 되어 있고 일루바타르는 모든 것들을 통해 일을 하여 결국 반지를 파괴하고 악에게 승리를 거둔다. 빌보의 동정심이 골룸을 구하고 골룸은 마지막에 반지를 파괴한다. 밤바딜과 프로도의 “우연한 만남”은 섭리적



이다. 사우론과 사루만은 교만과 자만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이들 등장인물들은 제각각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에루, 곧 일루바타르의 더 큰 주권적인 목적을 따라 하게 된다.

이영근 | 간단한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긴 답변 속에 깊고 중요한 원리와 개념들이 소개 되었다. 감사하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다. 2주간 강좌에 참석한 신학생들에게 나아가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고 싶은가?

2주간 수업을 함께 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한 숙소와 신학교를 매일 오가면서 신학생들과 많은 교제를 즐겁게 나눌 수 있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순전한 가슴을 소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명랑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모습을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

회 현장에 가서도 부디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간 만나 본 몇 한국인 목사들의 모습은 매우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웃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해주었다.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 대중문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문학 작품을 어릴 적부터라도 읽되 처음에는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가령 C. S. 루이스 같은 작가들의 책을 읽고, 서서히 그렇지 않은 책들도 읽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학과 문화적 대상들을 접근하고 관여하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것들도 신자들의 선을 위해 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대답자 | 이영근

미국 하와이대학교 박사. 현재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외래교수로 재직중이다.

WORLDVIEW

SPECIAL



손봉호의 유머

다시 돌아온 시한폭탄

강도 하나가 은행에 들어가 창구직원에게 권총을 겨누며 던져준 자루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넣으라고 고함쳤다. 그 직원은 이미 은행이 만들어 놓은 지침에 따라 돈과 함께 숨겨두었던 시한폭탄에 스위치를 켜 다음 돈다발과 함께 자루에 집어넣었다. 강도가 돈 자루를 메고 황급하게 나가자 은행 직원들은 폭발음이 언제 들릴지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때마침 은행 앞을 지나가던 용감한 시민 하나가 도망치는 강도와 격투한 끝에 그 돈 자루를 도루 빼앗아서 은행으로 메고 들어왔다. 의기양양하게 “이 자루에 든 돈, 이 은행 것 맞지요?”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도 모른다...

동성애 반대도 과유불급

손봉호 (대표주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느 관점에서 보아도 기독교 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모든 사람의 기본권과 모든 민족의 평등은 기독교가 인류 사회에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상 가운데 하나였는데 트럼프는 그런 이상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야 망하든 말든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입장이다. 강국의 국수주의는 인류의 재앙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정의인데 트럼프는 난민 같이 불쌍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써 마련한 의료보험 제도(Obama care)를 열심히 허물고 있다. 성경은 거짓말을 마귀의 전유물로 정죄하는데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거짓말을 주저하지 않았다. 지난 해 “올해의 단어”(word of year)가 “탈 진실”(post-truth)로 정해진 배경에는 거짓말을 통한 트럼프의 당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건국초기부터 미국이 내 세웠던 인류 보편적 가치들을 트럼프는 하나씩 허물고 있어 전 세계가 미

국에 가지고 있던 신뢰와 존경심을 떨어트리고 있다. 국내 국외 지성인들의 비판과 조롱이 커지고 있고 미국인들의 지지도 바닥으로 떨어져서 탄핵조차 거론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이혼한 경력이 있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 미국의 기독교 매체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80%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한다. 물론 백인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간발의 차이로 당선했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의 그런 지지가 없었다면 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뉴욕 타임스의 칼럼들에 의하면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G.L.B.T., 즉 남자동성애자, 여자동성애자, 양성애자, 성 전환자들의 권리를 옹호했기 때문이라 한다. 즉 성소수자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역겨워 함이 트럼프를 대통령

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 덕으로 당선
한 그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대대적
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유럽의 교회들이 식
민주주의를 옹호함으로써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여 서
양 지식인들과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것과 비슷
하게 이번에 복음주의자들이 달성한 작은 목적 때문
에 미국인들, 특히 지성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
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전형적인 과유
불급 (過猶不及)이라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비판과 항거가 거세게 일고 있다. 특
히 사회 일각에서 헌법 제 36 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
고...”에서 “양성의 평등”을 “성 평등”으로 고치자는
움직임이 있어 위기감이 더욱 커졌다. 성경이 동성 성
관계를 분명하게 정죄하므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세
계 최초의 그런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반대에도 올바른 평가와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낙타는 통과시키고 하루살이는 걸러
내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그보다 더 정죄하는 것은 거짓말과 우상
숭배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번번히 드러나는
거짓과 탐심(우상숭배, 골 3:5)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 교회 돈을 횡령해서 유
죄판결을 받은 목사가 설교를 계속해도, 대형교회의
목회세습이 일어나는데도, 논문과 설교의 표절이 발
각되었는데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
면서도 동성애는 마치 기독교의 사활이 거기에 걸린
것처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선다. 한 때 술, 담배 하
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처럼 지금은 동
성애를 찬동하면 기독교의 적으로 취급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그보다 더 정죄하는 것은
거짓말과 우상숭배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거짓과 탐심을 비판하는데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며,
동성애는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것처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선다.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애자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해서 동성애자를 비난할 수는 없
다. 그것은 사기와 사기꾼을 구별하는 것과는 전혀 다
르다. 사기꾼은 자기가 결정해서 거짓을 저지르지만
동성애자가 모두 스스로 동성애를 택한 것은 아니다.
보수 교단 목사의 대학생 아들이 자신이 느끼는 동성
애적 경향 때문에 심한 고민에 빠져있다. 그런 사람
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스스로 택해서 잘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보다
동성애자들을 더 심각하게 반성경적이라고 보는 것
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동성애에 대한 미국 복음주의자
들이나 한국 보수교인들의 전쟁은 승산이 별로 없다.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다. 여성안수와 같이 될 개연성
이 크다. 그 동안 여성안수를 반대하여 그것을 허용한
교단을 탈퇴한 목사와 교단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몇

기독교가 사소한 것에
목 뿔 이유는 없다.

동성애 반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달 전 네덜란드에서 가장 보수적인 개혁신교단 총회에 서 여성안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교단과 자매 관계에 있는 한국의 고신교단에서도 여성안수를 고려할 때가 됐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충격을 받을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 올 것이 온 것이다. 어떤 분들에게는 펄펄 뛰면서 분노할 소리겠지만 동성애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런 사소한 것에 목 뿔 이유는 없다. 동성애 반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시했던 십일조를 하루살이에, 그들이 무시했던 정의와 긍휼은 낙타에 비유했다(마 23:23-24). 둘 다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낙타를 택해야 한다. 적어도 하루살이 지키느라 낙타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초기처럼 예수님이 낙타에 비유했던 “정의와 긍휼”에 힘을 기울였다면 그 때 누렸던 도덕

적 권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루살이 같은 동성애와의 싸움에도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건국 후 상당기간 개신교만 군목을 보냈는데도 다른 종교나 사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만큼 기독교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도덕적 권위를 상실해서 기독교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너나 잘하세요!” 야유만 받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낙타와 하루살이를 구분하고 낙타에 집중해야 하루살이도 구할 수 있다. 정직하고 공정해서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과 믿음을 돈, 명예, 권력 같은 하급가치를 얻는 수단으로 착각하는 우상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약한 자에 대한 긍휼에 사용하면 영적 전투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제양규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교수)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풀어 주셨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다(요 8:11).

1. 개헌을 통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시도

국회는 2017년 1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7월까지 20차례에 가까운 회의를 통하여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지난 6월 개

헌특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깜짝 놀란 것이 헌법 개정안 속에는 동성애는 물론 동성혼조차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헌법 제11조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동성애)을 넣거나 끝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성적 지향 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제36조에 나와 있는 [양성 평등]을

삭제하고 대신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이의 없이 합의하였다.

[양성 평등]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 평등]은 다양한 성적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가 법제처에 의뢰하여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 평등]은 주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위한 내용으로서 [여성 권익보호]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특히 신설하려고 하는 [성 평등] 항목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 소수자의 평등을 위한 것으로서 다양한 결합과 관계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성 평등] 항목이 신설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당연히 합법화되는 것이다.

만약 헌법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되고,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는 의무 교육이 되고, 가정과 가족, 문화와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된다. 그리고 교회에도 엄청난 변화가 다가 오게 된다.

2.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교수 성명서

적어도 헌법에서만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국 교수들의 단호한 마음이 모여 현재까지 264개 대학 2,618명의 교수들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8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성명서 발표와 함께 개헌특위 위원장, 제1소위원회 위원장, 각당 대표 및 간사 등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부당함을 항의하였다. 특히 국민여론조사에서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양성 평등]을 없애고 [성 평등]을 신설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였다. [성 평등]과 여성 권익보호와는 상관이 없고, 진정으로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양성

평등]을 기초해야 함을 알렸다.

이와 함께 8월 10일부터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8월 17일까지 교수들은 단식과 함께 국회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부산대 길원평교수는 콩팥까지 절제한 간암환자로서 무리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1인 시위를 주도하였다. 평소 한끼 금식도 어려운 제양규 교수는 또 8일간의 단식을 감행하였다.

3.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소위 동성애 지지자들의 인권프레임이다. 맞는 이야기이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된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동성애 행위는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동성애는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일반인들은 물론 기독교인조차 그들의 허구적 논리에 넘어가고 있다.

사회적 폐해를 주는 흡연을 반대한다고 해서 흡연자를 차별한다거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는다. 동성애, 특히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통로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이 폭발적인 이유는 남성 동성애 때문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동성애는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미치며, 건강한 가정과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로 인하여 먼저 자신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폐해를 받고 있다.

선천적이지도 않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차별이 아니다. 동성자들의 인권은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또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자유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는 없다. 모든 자유에는 제한과 절제가 있다. “남자들도..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롬1:27)처럼 동성애는 무절제한 성적욕망에 비롯된 것이다. 이미 3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1번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무절제한 성적욕망과 부도덕한 성적만족을 위한 동성애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아니다.

4. 고난 받는 믿음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허용 방임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은 백주 대낮에 광장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 방송이나 드라마에서는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서구의 다른 나라처럼 동성애 행위로 인해 처벌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도 그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제 거꾸로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한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려면 엄청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가 건강한 사회에 큰 폐해를 주기 때문이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만약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가정과 가족, 문화와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동성애자들의 허구적 주장에 져서 성경은 물론 양심조차 입 다물고 있다면 온갖 폐해와 함께 고난 받을 다음 차세대에게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전국의 2,618여명 교수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의 문제이기 이전에 신앙적 양심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며칠 사이에 국회 개헌특위 활동보고서 [헌법개정 주요 의제]에서 [성 평등]이 [양성 평등]으로 바뀌었다. 8월말부터 9월말사이에 전국 11개 지역에서 국민대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더욱 치열해진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엿드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글 | 제양규

KAIST 기계공학 박사. 현재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의 교수로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회전기계진동연구실 실장, 머신나우(주) 대표이사, 엘트웬텍(주) 대표이사 및 그룹총괄 전무, LeTourneur 대학 방문교수 등을 거쳤다.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동성애 독재 옹호 논리에 무너진 서구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상황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려는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과, 동성애를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용어인 “성적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것이다(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됨).

동성애와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해 온 기관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동성애를 인간의 보편적

인 인권보다 더 높은 가치로 격상시켜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통제하여 국민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차별금지법 입법시도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는 헌법 개정 활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의 자유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세워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활동들이 만연해진 데에는 동성애가 앞서 서구 국가들이 동성애에 무너졌던 원인인 ‘차별’과 ‘인권’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구 국가들에서는 전문학문들이 정교하게 만들어낸 ‘차별’과 ‘인권’이라는 동성애 독재 옹호 논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고, 성경말씀을 따라 동성애 공격을 막아내야 할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도 이 논리에 넘어가 교회가 복음 앞에 분열되어, 결국 동성애 독재법리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서구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양심적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커플의 웨딩케익 주문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절할 빵집 주인이 약 2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다수의 동성애 옹호자들로부터 살해협박과 저주를 받았다.¹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동성결혼 주례를 할 때까지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무는 법원판결이 내려졌고,² 미

1. “동성결혼식에 판매 거부한 빵집 부부, 끝내 유죄”, 크리스천 투데이 2015.2.5.자 기사.

2. “미, 동성애는 보호하고 종교, 양심은 유린하나”, 크리스천 투데이 2015.9.4.자 기사. 항소심에서는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동성애와 동성애를 옹호해 온 기관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동성애를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보다
더 높은 가치로 격상시켜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통제하여

국민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국 교단에서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 반면, 오히려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사는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다.³ 이 모든 것이 동성애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의 실상이고 이미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논리와 이를 근거로 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활동들은 앞서 서구 국가들이 지켜 왔던 복음과 도덕을 동성애 독재 진영에 순식간에 내어준 일련의 과정들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본고에서는 인권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면서,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수많은 피해들을 초래하고 있는 동성애 옹호조장활동들의 부당성에 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3. “美 감리교, 동성애 반대 목사 면직, 교단법 역행”, 크리스천 투데이 2015.5.13.자 기사.

인권의 당위성은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므로, 부도덕함을 내포한 권리는 인권이 아니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누리며, 어느 곳에서나 마땅히 가지는 권리이다. 부나 권력, 인종이나 성별, 나이, 학력, 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노력, 품성과 같이 후천적인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권은 천부인권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는 영국 권리장전,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UN헌장,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고(헌법 제10조), 구체적으로 헌법 제11조(평등권) 이하에서 국민의 기본권 항목 등에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차별 받지 않을 자유(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권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가기 때문에, 결코 그 내용에 부도덕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규범으로 차별금지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편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부도덕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인종, 성별, 장애 등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차별금지사유들에 는 부도덕하다는 평가가 전혀 없다.

국가가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개인이 개인적 영역 및 사회적 영역에서 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이러한 인권이 보호되고 실현됨으로써 국가 사회 공동체 및 개인에게 선과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되며, 이와 반대로 부도덕함을 내포한 어떠한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개인, 사회, 국가에 유해한 결과들

이 초래된다면 그것은 인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부도덕한 가치를 법으로 보호해서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는 민주 사회의 도덕에 부응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호). 우리 헌법도 개인의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나아가 정당한 도덕률에 반하는 법률은 그 자체로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자명한 법원리로 존재하고 있는바, 그만큼 도덕이라는 가치는 인간사회 질서유지 규범인 법보다 상위의 개념에 있다.

따라서 인권은 반드시 도덕적이고 개인, 사회, 국가에 유익한 것이어야 하므로 도덕을 배제한 인권의 논의는 불가능하며, 도덕성을 상실하거나 개인, 사회, 국가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권리가 결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이 아님은 자명한 것이다.

성적지향(동성애 성행위)은 그 자체로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회·국가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결코 법률로 보호해서는 안된다.

성적지향은 동성애 독재 옹호론자들이 그 용어에 내포된 온갖 부도덕함을 은폐하여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인간 내면의 감정, 욕구의 영역으로 숨어들어가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용어다. 그러나 법률적·도덕적 책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히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감정이 아닌 외부의 행동, 즉 동성애 성행위를 다루어야 한다.

성적지향은 주로 동성을 향한 성적 욕망을 전제로 한 각종 행위들(동성애 성행위,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 수많은 부도덕한 성적 행위들(수간 및 수간 옹호조장활동, 소아성에 및 소

아성에 옹호조장활동, 간통 및 간통 옹호조장활동(등)을 모두 포괄하는 지극히 부도덕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다.

동성에 성행위는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입장이다. 압도적인 다수 국민들도 동성에 및 동성에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성에에 대한 선량한 성도덕 관점에서의 반대는 우리나라에서 유구한 역사상 단 한번도 변경된 바 없는 확고한 견해이다.

성적지향이 부도덕한 핵심적인 이유는 개인·사회·국가에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성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지향 문구를 근거로 벌여 온 동성에 옹호조장활동들이 초래한 도덕적·보건적 폐해들은 매우 심각하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해 사전에서 동성에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삭제되었고, 2004년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어 청소년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영상물에 아무런 제한 없이 노출되기 시작했으며, 2006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육자료들이 사라진 반면 동성에 및 동성에 성행위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교육되고 있다. 또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지침 중 성기제거수술시행 조건은 차별이므로 시정하라고 권고하여 성기를 제거하지 않아도 성별을 정정하는 법원 결정이 나오고 있고, 2011년에는 인권보도조칙을 만들어 동성에 성행위가 에이즈감염의 주된 경로라는 객관적 사실의 언론보도가 금지시켰다. 반면, 동성에 성행위의 유해성을 알리며 비관 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는 차별과 인권의 이름으로 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도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에 독재 법리 앞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오자로 낙인 찍어 동성에 반대활동을 억제 시켜왔다. 그 결과 아직 사리분별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미친 폐해들은 참혹하다. 전세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에이즈감염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청소년 층에서 놀라울 정도로 폭증했다. 청년(20~24세) 신규 감염자는 2000년 15명에서 2015년 185명으로 무려 12배가, 청소년(15~19세) 신규 감염자는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 2015년 41명으로 무려 18~26배가 폭증했다.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에 옹호조장활동 및 부도덕하고 유해한 동성에 독재 보호법리에 의해 불치병에 감염되어 신음하고 있는, 국가 사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이 참혹한 현실은 성적지향이 결코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에 독재법리의 부당성

동성에 독재 옹호자들의 주장은 동성애자들이 동성

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입법 시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이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민주통합과 통합진보당에서 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성적지향 문구를 근거로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활동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강제적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에 기해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비판활동을 금지시키겠다는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도 이러한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법리 앞에서는 그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부도덕한 욕구 및 행위에 불과한 성적지향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인권보다 앞세우는 동성애 독재법리는 이치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나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법리이다.

각 교회와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성도들을 깨워내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회와 목회자들은 서구 선진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성경적 성윤리가 붕괴된 원인이 동성애 독재 옹호자들의 공격에 대해 교회들이 제대로 된 연구와 학습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침묵하고 분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출선하여 동성애와 관련한 정확한 전문지식들을 집중 학습하여 동성애를 금지하는 복음적 진리를 직접 자신의 설교 등을 통해 선포하고 실행함으로

써 성도들을 깨워내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일치된 목소리로 동성애 독재 법률인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이러한 동성애 독재 법리의 뿌리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동성간 성행위의 만연으로 인해 개인·사회·국가에 초래하고 있는 재앙과 같은 폐해와 혼란을 줄여가고 감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8/12일자 발행)



글 | 조영길

조영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88)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1996). 김연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노동팀에서 활동했고, 그 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설립(2000)하여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주로 노사관계 관련 법률자문 업무 및 노사관계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왔다.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폐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한 강연,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발제 또는 토론 참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론이 가지는 심각한 위험성, 특히, 우리나라의 선량한 성윤리 훼손의 폐해와 분별력 약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왔다.

범죄가 사랑으로 둔갑된 군대내 성추행(동성애) 사건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 중에 하나가 A대위 사건으로 나타난 군대내 동성애 문제일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군동성애 문제로 확산되면서 주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 군대는 사실 동성애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훈령 1932호 ‘동성애자 군복무 규

정’으로 2006년 이전에는 동성애자를 관리하는 형태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보호하도록 규정이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는 대대장이 특별 보호하면서 필요시 화장실, 생활관 등을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현재 현역장병들이 동성애 채팅앱에 가입하여 동성애 행위를 위한 만남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

제는 군복을 착용한 사진은 당연하고, 군내부를 배경으로 자신이 속한 부대를 떼땃이 올리고 있다. 심지어 동반입대제도를 활용하여 동성애자들끼리 입대하여 부대내의 생활관, 화장실, 목욕탕, 근무초소 등에서 동성애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A대위 사건도 이러한 행위의 연장선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사랑으로 보는 것이며 부대내의 성행위조차도 법적으로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5월 24일,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A대위가 하급자들과 동성 성관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군인권센터와 친동성애 단체들은 “사랑에도 불법이 있다”며, “비록 점심시간에,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상호 합의하에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A대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동조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보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성소수자 아니 남성 동성애자만을 위한 대표’로 자신들의 위치를 전락시킨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군형법 92조의 6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총대를 매겠다’ 라며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보인다. 더욱 문제는 김종대 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국방을 감시하는 국방위원이라는 점이다.

왜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주장들을 할까? 이는 정치사상의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바로 성정치 사상이다. ‘성정치’는 인간의 본능적인 성욕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쾌락을 통한 만족감을 찾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기존 사회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사상이다.

이를 합법적으로 변형한 것이 성적자기결정권이다. 그러면 김종대 의원이 소속되었던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내세워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군대내 동성애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본질의 문제를 살펴본다.

첫째, A장교는 신분자체가 대위로서, 그 상대가 병사를 포함하여 전부 하급자만을 상대하였다. 장교의 직책은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로서 부사관과 병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하급자만을 상대로 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대위는 근무하는 부대에 처음으로 전입 온 B하사를 상대로 근무복장을 입은 채로 성행위를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하였다. 이런 행위가 어떻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명백히 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둘째, A장교는 한 사람과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닌 여러 사람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다. 행위 장소는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병영내 독신숙소이고, 시간도 엄연한 일과시간이다.

이런 행위는 사랑이라고 결코 할 수 없다. 이는 분명한 규정과 법규를 위반한 일탈행위로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과연 이들이 성소수자이고 사랑의 행위인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오염시켜버린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군대내에서 하급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탈행위요, 범법행위라는 점이다.

셋째, 군형법 92조의 6 적용문제이다. 92조 6은 단순히 성추행의 문제를 넘어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을 고려하여 법으로 제정하였다. 2008년 대법원에서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한 이후 2002년, 2011년, 그리고 2016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헌법재

판소는 '합헌'(정당함)으로 결정했다.

이는 상명하복의 조직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가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군인의 신분인 A대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매매나 도박이 본인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되듯이 군대내에서 동성간 성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군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처음 입대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국방부와 국회에서는 또 다시 군형법 92조 6에 대하여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체계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천지법의 이연진 판사가 92조 6의 '기타 성추행' 부분을 두고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에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사건처럼 상급자가 부하를 상대로 그것도 병사들을 상대로 추행한 경우, 또 같은 부대내 영내에서 일과시간 내에 성추행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여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분명하면서도, 강력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영외에서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하는 것과 구분하여 군이라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히 동성애자를 단순히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보건의 문제도 그보다 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우리의 장병들이다. 우리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지향하는 공동선을 실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20대의 남성들에게 군형법 제92조의 6은 원치 않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예방장치와 같다.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반 사회의 기준을 적용해 관련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군형법 92조 6의 폐지에 적극적인 군인권센터의 운영위원인 김종대 국회의원에 이어, 역시 운영위원인 이유정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어 군형법 92조 6의 위헌시비를 판결하기 때문이다.

군대는 우리 아들이 땀흘리며 웃고 우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마음껏 젊음을 불사르며 내 조국, 내 부모를 지키기 위해 가장 보람되고 가장 중요한 부대에서 멋진 전우들과 근무하였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글 | 김영길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전문위원, 미래목회 포럼 정책자문위원, 한국 기독교인권본부 전문위원,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회원, 예정총회(대신) 동성애 대책위원장, 바른(軍)인권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인도어학 과를 졸업했다. 국방대학원 국제관계(석사), 침례신학대학원(석사), 백석대학원 재학중(박사)이다.

대학 내 동성애 운동과 대응 방향

남승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 총무)



1. 서울대학교의 동성애 운동과 반동성애 운동

2015년 11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김보미 후보는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며, 출마의 기조 연설에서 “성적 지향은 인간이 가진 다양한 속성 중 하나일 뿐이고 이와 관계없이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세상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보미 후보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총

학생회장에 당선된 후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공약을 “임기 내 명운을 걸고 꼭 완수하고 싶은 공약”이라고 공언하였다. <인권가이드라인>은 소위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규범으로서,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가족 상황 및 형태’)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였다. 이후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고, 두 차례 <전체학생대표자회

의)에서 요식적 논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코칭과 후원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인권가이드라인>을 학교 당국에 전달하고 공식 제정을 요구하였으나, 학교 안팎에서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서울대 성낙인 총장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총학생회의 운동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었고 현재까지 <인권가이드라인> 이슈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

이와 같이 대학 내의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이 2016년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시도되었으나, 앞으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문화한 <인권가이드라인>(혹은 인권조례/차별금지조례) 제정 시도가 여러 대학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총학생회의 대표가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연세대(총학생회장), 계원예술대(총학생회장), 카이스트(총학생회장) 등의 움직임이 주목되며, 이외에도 이미 60여 개 대학에 생겨난 동성애 학생동아리들이 각 캠퍼스에서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규범 제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 대학의 동성애 운동과 대학생들의 동성애 인식 현황

서울대 총학생회의 동성애 운동: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래 전부터 일반 학생들에게 동성애자("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단과대학과 학과 차원에서 진행해 왔다. 이는 특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입생들은 입학하기 전 매년 1-2월 단과대학 학생회가 주관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데, 여기에서 선배들은 신입생들에게 소위 "인권조례"(혹은 "어울림조례" 등으로

대학 내 동성애 동아리가 확산되면
머지않은 시점에,
빠르면 수년 내에

한국 대학의 문화가
부도덕한 성적 타락의 길로
내달을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 문화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블럼)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례에는 빠짐없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되며, 이는 대학 사회의 규범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대학 내 구성원들의 학문과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동성애 인권 교육'은 일반 학생들의 비판적 지성을 마비시키고, 대학 생활 내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여 무비판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도록 호도한다. 특히 기독교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과 편견주입으로 인해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회의에 빠지고, 복음의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복음 전도를 회피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캠퍼스의 동성애 학생 동아리 확산:

최근 많은 대학에서 동성애 학생 동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학 내 동성애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대학 내 동성애 동아리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 국내 다수 대학이 연합하여 활동하며, “QUV”라는 이름의 연합체에는 60여 개 대학의 동성애 학생 동아리가 가입되어 있다. 대학 연합체의 활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들이 한국 동성애(“성소수자”) 운동 단체들(예를 들면, “무지개 행동” 등)과 깊은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동성애 운동이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층의 동성애 운동이 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자치단체)의 동성애 운동을 이끌어가는 거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 내 동성애 동아리가 확산되면 머지않은 시점에, 빠르면 수년 내에 한국 대학의 문화가 부도덕한 성적 타락의 길로 내달을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 문화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동성애 학생 동아리는 1995년 연세대학교에서 ‘کم투게더’ (1995년 3월)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서울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QIS’가 결성되었다. 기독교 재단의 대학이나 신학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이화여대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숭실대 ‘SSU LGBT’, 홍신대 ‘강충강충’, 한신대 ‘고발자’. 2013년에는 전국 대학의 동성애 학생 동아리의 연합체(QUV)가 구성되었고, 2014년 8월에 이에 참여한 대학은 15개에 불과했으나, 최근 그 수가 급증하여 2016년 말 현재 54개 대학의 59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동아리들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고 급진적이며, 학내와 학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캠페인, 현수막, 대자보, 세미나, 문화행사(동성애영화 상영), 동성애 교육(청소년 대상 포함), 퀴어문화축제 공동참가, 동성애 동아리 퀴어 파티 등.

서울대 학생의 동성애 인식:

2016년 서울대학교에서는 동성애 운동이 표면화되고 이에 대한 기독교학생들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의 기독교학생들은 동성애(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16년 서울대 내부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¹ 조사에서 나타난 기독교학생들의 의식은 아래의 예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Q)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1) 동성애는 죄지만, 다른 죄보다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 “동성애를 너무 큰 죄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른 죄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모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이미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서 유독 동성애 문제만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A2) 동성애는 심각한 죄악으로 절대로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예) “사회의 건전한 성 가치관과 성 윤리를 깨뜨리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A3) 동성애를 단순히 죄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예1) “저는 성경의 무오설을 믿지 않아요. 동성애를 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해석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2)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략) 사랑의 형태에서 죄의 기준은 사랑의 대상

1. 조예상 (2016) ‘동성애에 대한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의 인식과 인권가이드라인에의 제언’ (서울대학교 베리타스포럼(2차, 2016.9.28),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2016) ‘서울대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 서울대학교의 다양성이란?’

이 동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타자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느냐 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도 죄인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성애 역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예상(2016)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한국교회에도 제언... 먼저는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서울대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싶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법률에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대학가에서 비기독교인들과 살을 맞대며 살아가는 기독교 청년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 ...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관해서만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귀 기울이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서울대학교 총장 직속 기관인 <다양성위원회>는 2016년 하반기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서울대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12월 13일 발표하였다.(응답자 수: 5,240명) 이 조사에서는 ‘다양성’이라는 범주에 ‘성별, 종교, 국적, 장애’ 등 전통적인 차별사유들 이외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대학 내의 ‘차별금지’(혹은 ‘인권’) 담론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는, 응답자들 가운데 4.5%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7.5%가 ‘개선되어야 할 차별문화’로서 성적 소수자 차별을 꼽았다.

미국 대학의 동성애 운동과 차별금지법:

20세기 후반 미국의 동성애 운동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사회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와중에 대학은 동성애 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학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그 안에는 ‘종교’와 ‘성적 지향’이 차별사유로 적시되었으며, 이는 대학의 기독교생 동아리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가운데 미국 <대법원 2010년 판례>는 많은 대학들이 크리스천 그룹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캘리포니아 소재 공립대학의 Law School들에서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크리스천 학생 동아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San Francisco의 Hastings College of the Law에서 제기된 소송이었는데, 아홉 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5대4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이후 특별히 여러 대학에서 차별금지 조례 시행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었다.²

Time지 기사(2016.10.6)는 “미국 대학 선교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스텝들을 방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인 InterVarsity가 소속 스텝멤버 1,300명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동성혼(gay marriage)을 옹호하거나 혹은 InterVarsity(IVF)의 성(sexuality)에 관한 공식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11월 11일부로 단체

2. 이 시기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기독교생 동아리의 활동이 제한되는 갈등이 표출되었다. Bowdoin University,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 Vanderbilt 대학, Tufts Universit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Rollins College in Florida. NYTimes 2014.6.9: “Colleges and Evangelicals Collide on Bias Policy”, (<http://intervarsity.org/news/intervarsity-chapters-return-csu>), InterVarsity 홈페이지 게시물(2017.1.18 방문):

‘동성애 (인권) 운동’에
맞닥뜨린 기독교학생들은
대부분 뒤로 물러서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의
‘동성애(운동)’에 대한
인식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청소년을 포함한 신자들에게
동성애(운동)에 관하여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를 떠나야 한다.” 이는 스텝들에게 강요된 것은 아니지만, 공식 지침에 동의하지 않는 스텝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단체를 떠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InterVarsity가 공개한 <인간의 성에 관한 신학적 개요>는 ‘이혼’과 ‘혼전 성관계’를 금하며, 특별히 ‘동성혼’을 분명히 죄로 규정하며 금하고 있다.

3. 기독교청년들의 동성애 (운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야

대학에 입학하는 기독교청년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과 대학에 만연한 ‘다원주의적/상대주의적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한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동성애 (인권) 운동’에 맞닥뜨린 기독교학생들은 대부분 뒤로 물러서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의 ‘동성애(운동)’에 대한 인식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청소년을 포함한 신자들에게 동성애(운동)에 관하여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교육이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서울대학교에서 2015년 말 총학생회의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시도가 표면화 되었을 때 거의 모든 기독교 학생들은 <인권가이드라인>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전학대회에 참석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기독교 학생은 기독교인 연합 활동을 하는 극소수였다. 또한 기독교 학생들은 대체로 ‘반동성애 운동가’를 대학에 초청하여 특강을 듣거나, 기독교수 그룹에서 동성애 관련 포럼을 주관하는 문제에 관해 기대보다는 오히려 우려를 표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강사들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기독교학생들이 점차 동성애 운동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대학사회에서 동성애 운동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동성애 운동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세미나, 그리고 ‘동성애와 한국사회’라는 주제의 ‘서울대 베리타스포럼’(1-2차)이 이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대응 노력을 통해, 서울대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의 동성애(운동)의 진실에 대한 인식이 점차 제고되었다. 특히 기독교학생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대자보 활동을 개시하면서 적극적인 반동성애 학생 운동 그룹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런 변화는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독교학생들도 동성애 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다각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성애(운동)의 실상과 그 폐해에 관해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동성애 운동과 동성애자의 삶(감정과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에 대한 적합

한 대응을 찾지 못해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동성애자들과의 공존을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성애자와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독교 청년들이 동성애(운동)를 이해하는 데에는 아래 정보들이 매우 실효적이었다.

- (1) 신학적 정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퀴어 신학은 극소수 신학자들의 조작적 주장에 불과하다.
- (2) 생물학적 정보: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 (3) 보건학적 정보: AIDS와 남성의 동성간 성행위의 상관 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동성애 운동을 이대로 방치하면 AIDS 환자는 계속 급증하고, AIDS 관리와 치료를 위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 (4) 정신의학적 정보: 미국의 동성애 운동은 불합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동성애 성향을 정신병 범주에서 제외시켰으며, 아직도 그 범주 설정에 논란이 있다.
- (5) 법학적 정보: 최근 대법원 판례와 헌재의 결정문에는 “동성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준하는 발언은 전혀 ‘혐오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 (6) 철학적-사상적 근거: 한국의 동성애 운동은 국제적인 성해방 운동과 성혁명, 그리고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국제 동성애 운동에 맥을 잇고 있으며, 이 흐름은 모두 반기독교 운동으로 수렴된다.

최근 20년 동안 대학생 신앙 운동이 약화되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학생들은 줄어가고, 대학 내 선교단체들은 청년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동성애 운동

은 대학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회의의 품게 하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 대학 사회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보루여야 하며, 이에 동성애(운동) 이슈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동성애 운동의 실체와 폐해를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의 청년세대가 진리를 선포하고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



글 | 남승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 총무, 미국UCLA 언어학박사, 한국언어정보학회 회장

미국 대기업의 동성애 지지실상과 대응 방안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 기업의 동성애 지지 현황

미국에서는 동성애 집단이 의미있는 소비자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기업들의 마케팅 대상으로 관심이 높아져 왔다. 광고나 브랜드에서도 '동성애 친화적'(gay friendly) 성향이 증가하자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Turow, 1997), 1991년

Wall Street Journal이 동성애 소비자 집단을 '꿈의 시장'(dream market)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업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Rigdon, 1991). 이후 기업과 광고 관련 매체들이 동성애 시장을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한 시장으로 부각시켰고, 2015년 미국 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헌판결 이후 미국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공개적이고 대담하게 변화했다. New York Times는 동성애 시장이 "기업들이 기피하는 시장에서, 호기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던 시장을 지나, 이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장이 되었다”(Ragusa, 2005)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동성 결혼 합법화가 허용되지 않고,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업이 공개적으로 동성에 지지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의 변화와 법적 기반이 바뀌면 기업들이 이를 마케팅의 기회를 활용하게 되며, 대중 광고에 동성애 커플들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친숙한 제품들의 광고에 동성애자들이 등장하다 보면 동성애가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인식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성애 지지 움직임을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현황이 어떠한지,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자료가 없었던 시기에도 일찍이 American Express, Absolut Vodka, Subaru, IBM, American Airlines 등 유명 기업들이 동성애 틈새시장(niche market)을 목표로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Fortune 500대 기업 중 180개가 동성애 시장 대상 광고를 했고 광고비가 \$2억3천3백만 달러에 이르렀다(Gay Press Report, 2006). 동성애 시장을 평균 이상의 소득과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매우 바람직한 소비자 집단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고소득에 가족 부양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동성애 소비자들을 과시적 소비를 하는 집단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다.

동성애 소비자를 향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일반 대중이 동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인권 운동단체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와 법적 지

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동성애 친화적인 기업들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자 이들은 강력한 정치적 로비 단체이며 압력 단체로 부상했다. 일찍이 Subaru가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 시민단체인 Human Rights Campaign(HRC)에 기부를 시작하면서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자금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정치인들을 동성애 우호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했으며 정치 캠페인에도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은 반동성애 성향의 정치인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입법활동을 저지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이슈는 소비자로서의 중요성만이 아닌 기업의 인적자원 확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소수자의 인재풀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성소수자 친화적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에 따른 것이다. Hewlett와 Yoshiro(2016)는 HBR의 기고문에서 성소수자 포용적 기업(LGBT-inclusive companies)이 인재채용에 유리하다고 했다. LGBT 직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우호적인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이 동성애 지지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동성애 지지 세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성소수자 퍼레이드 참가 및 후원, 동성애 단체에 기부, 동성애자 출현 광고, 동성애 지지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기업들 중 하나가 스타벅스이다. 하워드 슈츠 회장은 2012년 동성결혼 법안 추진에 지지선언을 했으며 동성애 단체에 매년 거액을 기부하고 있다. 그 결과 동성애 지지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한 것에 대해 2013년 주주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는 작년 주주들에게 38%의 이윤을 돌려주었다. 동성

한국에서는 아직 동성결혼 합법화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업이 공개적으로
동성애 지지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여론의 변화와 법적 기반이 바뀌게 되면
기업들이 동성애를
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결혼 지지는 2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결정이다. 우리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회사를 찾을 자신이 있다면 떠나도 좋다.”

2014년에 애플의 CEO인 팀쿡이 커밍아웃을 했다. 그는 “나는 내가 게이인 것이 자랑스럽다.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기본적인 문제다. 또한 그것은 애플의 사업을 돌아가게 하는 창의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2013년 ‘LGBT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한 직원들께 식사와 티셔츠를 제공했으며 2014년 퍼레이드에 직원들의 참여를 권유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LGBT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임직원 700명이 새로운 페이스북 티셔츠를 맞춰 입고 참가했다. 구글은 미국과 해외에서 열린 LGBT 퍼레이드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기업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2014 퀴어문화축제’ 공식파트너로도 참여했다. ‘2015 퀴어문화축제’ 파트너로서 행사를 유튜브에 생중계했으며 모금활동을 통해 청소년 동성애자 컴퓨터에 기금을 전달했다. IBM은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여러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다양한 배경의 인력을 뽑는 다양성(diversity) 채용을 실시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한국 IBM도 직원채용 시 성소수자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은 동성애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IT 기업의 조직 문화가 소수자들에 대한 열린 문화로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년 성소수자 퍼레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성커플을 위한 출산 유급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야후는 동성커플을 위해 입양, 대리모 출산 시 8주간 유급 휴가를 실시한다. 구글은 입양과 대리 출산시 7주의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페이스북은 동성커플 양쪽에 4개월씩 유급 휴가를 준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을 이등시민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들을 이등시민으로 취급할 경우 공정성은 물론 인재확보에 있어 경쟁력도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실리콘 벨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친동성애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미국 52개 주 가운데 최초로 공립학교 교사들이 LGBT의 역사를 K~12학년까지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와 동성애자를 타겟으로 하는 광고를 별도로 제작했으나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성소수자 지지광고가 급증했다. 이들 기업들은 광고 속 동성애 이미지를 활용하여 성소수자 지지를 인권준중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활용하고 있다. Absolut Vodka는 처음에는 주로 게이잡지에 광고를 게시했으나 이제는 대중잡지에도 적극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 Dove는 2016년 6월 19일 ‘아버지의 날’을 맞아 동성애 가족 광고를 게시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 영상 30초에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에게 다른 남자가 이마에 키스하는 장면을 담은 장면이 등장한다. JC Penny 백화점은 동성부부를 광

고모델을 기용했고, 메이시 백화점은 게이 퍼레이드가 있는 6월에 백화점 외관에 광고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웰스파고 은행은 레스비언 커플이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우리는 다양성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이번 광고를 통해 우리 회사의 철학과 커뮤니티를 보여주려 한다.”

2. 왜 미국 기업이 동성애 우호적으로 변화했는가?

(1) 동성애 논쟁의 프레임 변화

기업이 동성애 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입장과 성소수자들의 시장성이 커지는 현상을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동성애 논쟁의 프레임 변화가 있다.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프레임 속에 동성애자를 포함시켜 동성애 차별 금지를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인권운동으로 전환시켰다. 성소수자 권리확대를 위한 노력을 50년 전인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Civil Rights)에 비교하면서 인권단체와 기업이 전면에서 나서고 있다. 동성애 지지는 정치적 세력과 결합되고 있어서 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은 지지자 결집에 활용하고 있다.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동성애 우호 세력의 확보에, 공화당은 반대세력의 지지층을 끌어 모으고자 하고 있다. 2015년 다보스 포럼의 다양성에 관한 세션에서 기후변화, 여성과 함께 LGBT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노동현장에서 다양성은 양성 평등뿐만 아니라 LGBT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여론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2004년 찬성 38%, 반대 59%에서 2014년 찬성 59%, 반대 34%로 바뀌었다. 미국의 대기업들, 특히 포춘 500대 기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포춘 500

대 기업의 대부분이 성적 성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문서화했으며, 비율이 2002년 61%에서 2012년 86%, 2014년 89%에 이르렀다. 미국의 ‘동성결혼지지 법정 의견서’에 379개 기업이 서명했다. 2012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동성결혼 불법화 결정시 포춘 500대 기업 중 이를 반대하는 기업은 없었으나, 2015년 인디애나주의 불법화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인디애나주 대표기업 CEO 9명이 주지사 및 상하원 의원에게 반대서한을 발송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인디애나주 출장금지, 계획된 행사를 취소했다. 애플, 나이키, 갭, 리바이스, 페이팔 등도 주요 언론에 비판입장을 게시했다. 인디애나주는 결국 발표 4일 만에 입장을 수정했다. 조지아주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반동성애법을 추진했다. 종교인들이 동성커플의 결혼식 주례나 참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목사보호법’을 추진했다. 수정헌법 제1조 보호법에서 비영리 단체나 사립학교 등이 동성결혼에 반대해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월트디즈니는 TV와 영화촬영지를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디즈니는 조지아주에서 248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17억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결국 반대의견에 부딪혀 조지아주는 법안을 포기했다.

(2) 마케팅의 주요 타겟

LGBT 집단은 80년대 후반 이래 마케팅의 주요 타겟으로 등장했다. 기업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포브스(2013)는 LGBT 시장을 장기불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신시장으로 보고 동성결혼 합법화로 \$90억 매출을 예상했다. 실제로 2011년 동성결혼이 허용된 뉴욕에서 \$2억 5,900만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 메릴린치는 2001년 게이집단 전담팀을 개설하고 나서 거래규모가 5년 후 \$1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도가 높아 기업

동성애 단체들은 캠페인을 통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업들을 ‘차별주의자’나 ‘종교적 극단주의자’로 낙인찍고 대대적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편,

동성애에 우호적인 기업들은 ‘평등하고 진보적인 회사’로 홍보하고 있다.

은 이들의 성향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광고전문 대행사 오피스컴 그룹의 제프리 가버 회장은 “경기침체로 고심하는 기업들에게 LGBT 시장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했다. 시장조사기업 NPD 그룹의 수석애널리스트인 마셜 코옌은 “시장을 선점한다면 인구 5%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LGBT 지지 기업은 투자하기 좋은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3년 금융회사 크레디트 스위스는 ‘LGBT 평등 포트폴리오’를 출시했다. 성소수자들의 평등을 지키는 기업들의 주가를 지수로 만든 ‘LGBT 평등지수’와 같은 새로운 지수들이 투자자들의 척도로 대두되었으며, 운용결과 S&P 지수와 99% 일치했다. 펀드 투자사이트인 모닝스타의 로버트 골즈버로는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펀드들이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을 많이 봤지만 LGBT 평등 포트폴리오는 적어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LGBT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이제 ‘핑크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1년 William Institute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LGBT는 인

구의 3.8%에 해당한다(Gates, 2011).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분야는 웨딩, 관광, 금융, 패션 등이다. 성소수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 국가의 핑크산업의 규모는 GDP의 3~5%로 추정된다. 세계 전체의 시장 규모는 연간 \$3조이며 미국 \$7,500억, 아시아 \$8,000억 등이다. 동성결혼 합법화된 14개국의 평균 시장 규모 약 \$1조에 달한다. 이는 2013년 GDP 기준으로 인도네시아(\$9,463)보다 크고 한국(\$1조 2,583)보다 작은 세계 16위의 경제대국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들은 소비자 집단으로서의 고학력, 고소득,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대학교육을 받은 비율이 46%로 일반의 32%보다 높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 소득이 10% 정도 높다. 자녀가 없는 대신 애완동물, 식료품, 여행, 취미, 외식 등 라이프스타일과 자신들을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다. 신규제품에 민감하고 평균 이상으로 사교, 예술, 디자인, 미식에 관심이 높은 매력적인 소비집단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가지고 있다. LGBT는 그들을 지지하는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74%로 높은 편이다.

(3) 동성애자 지지 단체의 영향력 강화

동성애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이들이 기업과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HRC이다. 인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최대의 동성애 로비단체로서 동성애 관련 인권문제를 옹호하거나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미래의 젊은 LGBT 정치가들을 교육하고 있다. HRC는 매년 기업평등지수(Corporate Equality Index, CEI)를 발표하여 직장 내 평등과 관련된 기업정책 및 관행에 대한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평등지수’를 고안하기 전 이미 미국 내 대기업에서 일하는 LGBT 직원들을 파악하여 일종의 친목단체를 조직했다. 회사 중

역들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을 소집해 인맥 쌓기에 주력했다. 미국에서 동성애 관련 이슈가 발발하면 HRC의 네트워크가 가동되어 기업이 HRC의 입장을 한 목소리로 지지하도록 하고 있다.

All Out은 국제 동성애자 인권단체로서 소치 동계 올림픽 당시 세계 19개 도시에서 올림픽 후원 기업(삼성, 맥도날드, 코카콜라, 오메가 등)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반동성애법을 철회하는데 힘써 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동성애 단체들은 캠페인을 통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업들을 '차별주의자'나 '종교적 극단주의자'로 낙인찍고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벌이는 한편, 동성애에 우호적인 기업들은 '평등하고 진보적인 회사'로 홍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LGBT 공동체들의 숫자와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가족들과 친구들로 구성된 시장의 수와 영향력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개인적 구매력뿐만 아니라 반대기업들을 보이콧 할 수 있는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동성애 기업에 대한 보이콧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LG 제품 불매운동은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한 모델을 기용한 LG 제품 광고에 반발하여 불매 운동을 하면서 광고모델 교체,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러시아의 인권단체 8개, 개인 4명도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칩필레(Chik-Fil-A)의 CEO인 댄 캐티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하자 이 회사의 브랜드 선호도 지수가 76에서 35로 하락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동성애 지지 단체의 보이콧이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3.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미국의 동성애 지지 세력은 현재 시민단체와 다국적 대기업이 연합하여 정치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변화가 나타나

자 정치권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 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가 동성애 지지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기독교와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다국적 대기업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압력과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일부 진보 정치단체나 시민 단체에서도 동성애를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 쿼어 축제'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으며 정의당, 노동당, 청년좌파, 진보네트워크 등 다수의 정치단체가 참여했다. 동성애 후원단체(대구 쿼어 문화 축제, 동성애자 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한국 레스비언상담소)와 진보정당(노동당, 정의당)이 함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동성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나 소비성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국의 기업들은 보수적인 소비자들이나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하여 동성애나 성소수자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로 볼 때 동성 결혼 합법화나 법적 지위 향상은 기업들의 동성애 우호적인 성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이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 합법화는 성소수자 집단의 권리 향상에 그치지 않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건전한 사회규범에 대한 비판과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역으로 동성

에 반대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기독교나 반동성애를 표명하는 타 종교 집단에 압력을 가하면서 사회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며 윤리 규범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시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무조건 반대’나 ‘나쁘다’라고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왜 문제이며 무엇을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반대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다’ 또는 ‘질병이다’ 등의 가정 하에 소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친동성애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우선 정확한 실상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심각한 이슈가 되는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글로벌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해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 한국의 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동성애 이슈를 둘러싼 핵심 이해관계자의 태도와 영향력도 분석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비우호적이고 비판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 세대나 여론선도 집단이 동성애 우호적으로 되면 동성애 이슈를 둘러싸고 기독교 대 반기독교적 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게 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기독교계는 동성애 관련 무엇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인지 공적 담론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동성애 이슈에 대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 내고 메시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성애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파악에 입각한 자료를 만들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교계가 반동성애 입장 표명이나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적 독소조항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계가

동성애자를 포용하고 선교의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범교단차원에서 조사·연구기능을 갖추고 올바른 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기독교 단체가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글 |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현), 기독교경영연구원 이사(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이사(현), 13대 중소기업청장(2013~2016), 기독교경영연구원 원장, 코스닥 상장심사위원장, 중소기업학회 회장, 인사조직학회 회장, 전략경영학회 회장, 한양대 기획처장, 경영대학 학장,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WORLDVIEW

COLUMN

연재 칼럼

[연재칼럼 1] 동성애에 대한 책갈피

[연재칼럼 2] 동성애에 대해 막연한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20) “죄사함”에 대한 고백

동성애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동성애를 다루는 각종 문서와 책자는 거의 무한정이다. 분야만 하더라도 근동 지방이나 로마 시대의 문헌 조사에서 시작하여 일란성 쌍생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학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또 내용을 개진하는 이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천차만별의 분석 및 평가 자료가 존재한다. 여기 책갈피에서는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지하는 이들의 저술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두 권의 표준서

동성애 이슈와 관련하여 성경적 표준에 기반을 두

면서도 가장 센스 있고 탄력성 있는 글을 찾으려면, 리뷰어로서는 주저하지 않고 존 스토틀(John R. W. Stott, 1921~2011)의 Same-Sex Partnerships?: A Christian Perspective [1998년 Fleming H. Revell 간행]를 추천할 것이다. 이 책자는 스토틀가 별도의 저술로 기획한 것이 아니고,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한 [1984년 초판; 1990년, 1998년, 2005년 개정]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의 책임」(정옥배 옮김; 한국 IVP, 2012년 역간)의 16장 “동성애”를 문고판 형태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스토틀는 1장에서 동성애가 이슈화된 맥락을 소개하

고,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동성애 행위를 금하는 네 곳의 성경 본문 - 소돔 이야기(창 19:1-13) [사사기 19장 포함], 레위기 법전 (레 18:22 및 20:13), 부패한 로마 사회에 대한 묘사(롬 1:18-32), 바울 서신에 나타난 죄인 목록 두 군데(고전 6:9-10; 딤후전 1:8-11) - 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꼭 동성애의 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수정주의자들의 해석에 직면하여, 그런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그러한 방어적 시도는 오직 성과 결혼에 관한 세 가지 창조 원리를 밝혀야만 완결됨을 알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 3장의 내용을 기술한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적 입장에 반기를 드는 기독교 안팎의 반대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스토트는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 논변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각각의 반박 사항에 대해 다시금 응수를 시도한다. 이것이 4장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5장에서는 에이즈의 피해를 서술하고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조치가 어떠해야 할지 소개한다. 마지막 6장은 기독교의 기본적 덕인 믿음 · 소망 · 사랑을 주지(主旨)로 삼아 동성애자들에게 필요한 믿음, 치유에 대한 소망, 교회가 보여야 할 사랑을 서술한다.

짧은 내용이지만 존 스토트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 이슈에 대해 가져야 할 건전한 안목과 태도가 꽤 큰 정도로 함양되리라고 생각한다. 단지 그의 표현과 용어 사용이 축약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책자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선보일 책자는 스탠리 그렌츠(Stanley J. Grenz, 1950-2005)의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의 응답」(김대중 옮김; 새물결플러스, 2016년 역간) [Welcoming but Not Affirming: An Evangelical Response to Homosexualit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년 간)]이다. 그

렌츠는 침례교 전통의 신학자로서, 복음주의자로서는 흔치 않게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腦動脈瘤, brain aneurysm)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가 비교적 젊은 나이인 55세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그의 때 이른 타계를 안타까와 했다.

그렌츠는 책의 제목을 통해 자신의 취지를 명료히 밝히고 있다. 한 마디로 해서, 동성애자는 환영하지만 동성애나 동성혼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말 제목은 “환영과 거절 사이”라고 함으로써 다소 불명확한 표현을 채택했다]. 그의 관심사는 근본적으로 “동성애 관계가 인간의 삶과 행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역행하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에 맞추어져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실제적 방침이라는 측면에서 풀어 보고자 한다.

1장에서 그렌츠는 동성애의 본질과 원인을 규명하려는 현대의 과학적 시도를 요약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동성애 현상을 질병 모델에 의거해 설명하려는 심리학자들의 노력이다. 이들은 동성애의 근원을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찾든지 [주도적 견해], 이와 달리 동성애가 학습된 행위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소수적 견해]. 1950년대부터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생물학적 요인의 탐색 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이러한 탐색은 유전자 구조, 출생 전후의 호르몬 수치, 뇌 구조 분석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생물학적 실험의 결과 어떤 유전 요인이나 생리학적 요인이 동성애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서 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과학자 집단은 동성애가 유전과 환경 모두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합의를 이루어 가고 있다. 이것은 성적 지향의 성격 이해와 동성애의 변화 가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렌츠가 2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는 동성애 텍스트 네 곳 [창세기 19장 (및 사사기 19장), 레위기 성결법, 로마서 1장, 바울 서신의 도덕적 범죄 목록]에 대한 주해 문제이다. 그는 이 구절들에 대한 전통적 해석 - 성경이 동성애 행위를 금한다는 것 - 을 그대로 좇는다. 이 점에서는 앞서 소개한 스토트의 견해와 일치한다. 단지 그렌츠는 수정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학적 책략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또 그런 주해의 가당치 않음을 빈틈없이 반박하고자 한 까닭에, 논변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늘어졌다.

그러면 교회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동성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견지해 왔는가? 이것이 3장을 꿰뚫는 그렌츠의 관심사이다. 교부 시대에는 특별히 남성의 동성애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었다. 중세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성애 행위를 정욕의 여섯 가지 유형 - 나머지 다섯 가지는 간음, 간통, 근친상간, 성적 유혹, 강간인데 - 가운데 포함시켰는데, 그 중 동성애가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겨졌다. 종교 개혁 이후에도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특별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다. 이처럼 교회는 2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도록 한결같이 동성애 행위를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여겼다.

4장에서 그렌츠는 기독교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형성에 있어서 성경 텍스트가 어떻게 규범으로서 기능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일단 성경의 규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수정주의자들은 동성애 연관 구절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 원리인 바 언약, 사랑, 정의, 해방 등의 주제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렌츠는 우리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 (telos)이라는 맥락을 놓치면 이러한 주제들조차 우리를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목적”은 무엇인가? 그렌츠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5장에서 기독교 성윤리 - 섹슈얼리티, 결혼, 성행위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 를

개진한다. 이 가운데 성행위[성교]는 부부의 배타적인 연합을 아름답게 상징하고, 남편과 아내는 이 행위를 통해 상호 헌신을 재확인하게 되며, 부부 관계의 상호성을 기념하므로 한 배우자가 자기 파트너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자신의 욕구를 재확인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연합으로 생겨날 새 생명을 향한 부부의 열린 마음을 표현한다. 이처럼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남녀에 대한 결합이므로, 동성끼리의 성교는 결핍 행위이고 잘못된 상황에서의 성교로 판정이 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성애 지향”과 “동성애 행위”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는 동성애 감정, 애정, 충동, 욕망, 갈망 등 이겨내야 할 유혹이고, 이러한 욕구에 휘둘려 행동할 때 후자 곧 “동성애 행위”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라고까지 바뀌지 않을 경우 독신을 통해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에 근접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6장에서 그렌츠는 동성애자의 교회 참여에 대한 실제적 지침을 제공한다. 첫째, 동성애자의 교회 회원권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 없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교회 내 사역을 허용해 주는 방안까지 제안한다. 둘째와 셋째, 게이/레즈비언의 연합 및 그들의 성직 임명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넷째, 동성애자의 인권과 관련한 법안의 지지에 있어서는 사례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동성애자들에게 교회의 회원권을 부여하고 사역의 기회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떤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과도한 “환영 조치”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렌츠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복음주의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독교 성윤리의 제반 원칙들과 교회론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건설하고 바람직한 신학적 작업으로 평가 받아 마땅할 것이다.

두 권의 한국인 저술

앞에 소개한 두 종의 해설서는 주로 영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서양인 저술가의 책이었다. 지금 거론할 두 권의 책자는 한국인(들)에 의한 저술이다. 이 두 권이 한국인 저술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책의 구성과 성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 첫째 권은 여러 전공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호적(好適)의 시점(vantage point)으로 삼아 동성애 이슈의 여러 측면을 기술한 논문 형식의 글 모음이다. 둘째 권은 과거에 동성애자였다가 탈(脫)동성애를 시도한 한 인물의 간증 수기이다.

첫째 권은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예영커뮤니케이션, 2011년)이다. 책자에는 “동성애를 긍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라는 긴 부제가 붙어 있어, 책의 성격과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총 13 편의 글을 수록한 이 모음집은 전체가 3부 - 제1부 “오늘의 문화 속에 나타난 동성애 문제”(3편), 제2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반성”(5편), 제3부 “동성애 문제와 교회의 법제적이며 목회적인 실천”(5편) - 로 구성 되어 있다.

다음은 이 책자에 실린 글들의 목록이다.

- 제1부 오늘의 문화 속에 나타난 동성애 문제
 - 제1장 송해룡, 매스미디어 속의 동성애
 - 제2장 강진구, 동성애와 춤추는 영화
 - 제3장 김호경, 동성애, 그들의高原(高原)
- 제2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반성
 - 제4장 배정훈, 구약성서에서 바라본 동성애
 - 제5장 소기천, 동성애와 신약성서: 바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 제6장 정원범,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반성
 - 제7장 박성관, 동성애에 친밀성 구조 내 배려 및

치유 윤리적 성찰

- 제8장 김진, 동성애와 배려의 윤리학
- 제3부 동성애 문제와 교회의 법제적이며 목회적인 실천
 - 제9장 박종운, 성전환자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제10장 장현일, 동성애 차별금지법안문제점과 입법반대운동
 - 제11장 객재욱,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목회적 대응을 위한 내러티브적 설명과 제안
 - 제12장 이상억, 동성애자를 위한 돌봄의 목회미학
 - 제13장 노영상, 최근 논쟁이 된 차별금지법안 내의 ‘성적 지향’ 삽입 문제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입장에 대한 고찰

리뷰어 개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동성애와 관련한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글은 제2장과 제13장이었다. 전자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동성애 주제를 분석하고 소개한 글이었는데,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추세와 설득 논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후자는 차별 금지 법안 내의 “성적 지향”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파장을 야기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지혜롭고 균형 잡힌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권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자신의 탈동성애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을 생생히 기술한 간증 형식의 경건 서적이다. 공식적으로 소개하자면, 이요나, 「리애포마 동성애 탈출」(키네마인, 2015년)이다. 이 책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동성애 문제를 몸소 체험하고 고민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역경을 견뎌 낸 한 인물의 강렬한 고백록이라는 데 있다. 이요나라는 본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에피소드

와 일화들을 엮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리뷰어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동성애자의 인생과 고뇌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동성혼과 동성혼 가정 비판서

끝으로 소개할 자료는 동성애보다는 동성혼 및 동성혼 가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 그리하여 전통적 이성혼과 이성혼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 책자이다. Glenn T. Stanton and Bill Maier, *Marriage on Trial: The Case against Same-Sex Marriage and Parenting*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4)이 공식 명칭인데, 한글로 바꾸면 「시험대에 오른 결혼: 동성혼 및 동성 부모 육아에 대한 반대」가 될 것이다. 두 저자 모두 가정 사역 단체인 Focus on the Family에 소속되어, 인문학자인 Stanton은 사회 문화부 연구소장으로, 아동 및 가족 심리학자인 Maier는 부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이 책이 동성혼이 법제화되기 11년 전에 출간된 것을 보면, 많은 지도자들은 머지않아 이런 사태가 올 줄 예상하고 미리부터 준비했을 수 있다.

이 책자는 전체가 3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1, 2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3부는 동성애에 대한 응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동성혼 주창자에 대해 답변함

1장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2장 이것은 일차적으로 정의의 이슈가 아닌가?

3장 다른 문화들에도 동성혼이 있지 않은가?

4장 동성혼은 어떻게 하여 다른 가족을 위협하는가?

5장 동성혼이 좀더 개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6장 자녀들은 그저 사랑을 해 주는 부모 역할자만

있으면 필요가 충족되는 것 아닌가?

7장 전문 의료 그룹에서는 동성 부모 육아도 아이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2부 결혼이 성인, 자녀 및 사회에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함

8장 결혼은 부부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9장 결혼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10장 왜 자녀들은 어머니 및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가?

11장 이성혼자들은 어떻게 하여 동성혼 가족에 대해 길을 열어 준 셈이 되었나?

리뷰어가 이 책을 읽으며 도움 받은 점은 세 가지이다. 두 가지는 책의 내용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리서치와 연관된 사항이다. 첫째, 전통적 결혼과 가정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둘째,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얼마나 필수적인지 깨달았다. 셋째, 이 책에는 많은 자료가 소개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연구를 위한 디딤돌 노릇을 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가능하면 이 책자가 한글로 번역이 되기를 바란다.

동성애 이슈는 이미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로 성큼 다가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려면 어차피 표준서 1~2권은 읽지 않을 수 없다.



글 | 송인규

한국기독교학생회(IVF)의 총무로 역임하였으며,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

동성애에 대해 막연한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고민

시대마다 그 시대를 꿰뚫어보는 예언자들이 나타난다. 니체는 19세기 예언자이다. 가짜 예언자는 추측하지만, 진짜 예언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는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한 마디로 서구사회를 붕괴시켰다. 1882년 『즐거운 학문』에서 쓴 이 표현으로, 니체는 기독교로 대변되는 유럽의 형이상학적 가치체계에 종말을 고한 것이다. 니체 이전에도 기독교가 부패할 때마다 지식인들은 신은 죽었다고 한탄했었다. 하지만 니체 이후 '신은 죽었다'는 명제는 기독교적 사고가 얼마나 낡았는가를 조롱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이어 기독교에 날린 두 번째 강력함 스트레이트 펀치였다. 롤랑 바르트는 프랑스의 기호학자이다. 그가 1960년에 '저자는 죽었다'는 선언을 했다.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이란 에세이에서 저자의 권위를 해체한다. 그는 저자가 텍스트를 쓰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텍스트는 저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자의 손에 우연히 얻어걸린 것이다. 따라서 독자가 텍스트의 해석에 의문을 갖고 저자에게 질문해도 저자는 그 답을 해줄 권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바

르트는 선언한 것이다. 니체와 바르트는 의미가 인간을 억압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의미를 끊어내어 인간으로 하여금 의미에 억압받지 않고 텍스트가 주는 쾌락적 유희를 느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다루려는 동성애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 위치해 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적시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더 쉽게 다가온다.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동성 간 성행위로 감염된 것이다. 한국 역시 2013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위험국가'가 되었다.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에이즈나 동성애를 도덕적인 죄와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동성애를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에선 동성애를 죄가 아닌 개인의 취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법전도 아니고, 또 누구나 그 권위에 동의하지 않기에, 교회 밖 세상은 동성애를 성소수자 보호, 인권이란 시각에서 접근한다. 성경은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선언한다. 성경공부는 저자인 성령이 전달하려

고 한 메시지, 주제, 도덕 같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러나 교회 밖 사람들은 저자가 아니라 독자, 이데올로기, 수사학, 텍스트의 미적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경우에도 저자의 의도와 관련된 부분은 참고하지 않는다. 저자는 존재하지만 죽은 것이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동성애의 역사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고대 이집트에선 신과 동성애 관계를 갖는 것을 행운으로 여겼다. 남자가 신과 향문성교를 갖는 것은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표시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발굴된 관(棺)에 보면 창조신이자 태양신인 아툼(Atum) 혹은 레(Re)와 관계를 가졌다는 글귀들이 남아 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법전을 반포한 함무라비 왕도 많은 남성을 연인으로 두었다. 그는 기원전 1792년에서 1759년까지 바빌론을 통치한 강력한 왕이었다. 그리스에선 동성애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새겨진 항아리들이 무수히 남아 있다. 스파르타에서도 동성애는 일상이었다.

아랍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뉴욕대 사회학 교수인 데이빗 그린버그(David Greenberg)는 동성애는 근대까지 번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버그는 “모로코에서 ... 남색은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저명한 이슬람 학자인 마샬 호지슨(Marshall Hodgson) 역시 “성인이 남자아이와 관계를 맺는 것이 상류층에선 너무 흔한 일이어서 굳이 이런 것을 숨기려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동성애는 이집트, 그리스, 메소포타미아뿐 아니라 켈트족, 고을족, 영국, 중국, 일본, 태국에서도 번성했다. 유대를 제외하곤, 동성애는 어디서나 번성했다. 동성애를 죄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태인과 크리스천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2015년에 실시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65%가 자신을

무신론자 혹은 종교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1991년 실시한 갤럽에선 같은 질문에 대한 수치는 26%였었다. 불과 24년 만에 무신론자가 39%나 늘었다. 이런 수치의 변화는 사회현상으로 확인된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19개국 중 유일한 민주국가이지만, 전체 인구의 10%가 동성애자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경제수도인 텔아비브의 경우, 인구가 43만 명인데, 이중 25%(10만 7천명)가 동성애자이다. 이 도시엔 동성애자를 위한 술집, 사우나, 클럽, 해변, 영화제가 번성 중이다. 동성애는 크리스천들에게 혼란스런 영역이다. 교회는 다윈의 등장 이후 일반적으로 밀리고 있다. 창조론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난센스로 받아들인다. 고개는 끄덕이지만 관심은 없다. 20세기 내내, 그리고 가까이는 신무신론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크리스천들은 좌절을 느꼈다. 그 좌절감을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진화론은 이제 학교 교육에서 필수 교과가 되었다. 이제 동성애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동성애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낀다. 하나는 성경에서 오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동성애를 비판하여 동료와의 관계를 망치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다. 두 가지 두려움 모두 근거가 있다.

인간의 경험은 읽고 해석해야할 텍스트

철학과 과학은 새로운 관점을 따라간다. 신학 역시 새로운 관점에 도전을 받는다. 우리의 이해는 역사, 문화, 언어를 통해 유전되어온 판단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나의 시각은 인류가 역사와 경험을 통해 축적해 온 수많은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란 뜻이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보다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21세기 심리학자들은 20세기 초의 프로이트보다 인간의 심리를 더 정확히 꿰뚫고 있다. 새로운 발견과 통찰로 우리는 똑똑해진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일반인은 여기에서 갈린다.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석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불확실한 내일을 대비한 '저축'과 재산을 모으기 위한 '축적'을 가르치는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답하기 무척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수호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단자로 정죄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수도 커서, 그들이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해석하는 관점일 때가 많았다. 그 결과 처음엔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지고, 개신교는 다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같은 교단으로 나뉘졌다. 한국 장로교의 경우엔 세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은 결가자들이 생겨났다.

복음을 깨달을수록 우리 안의 편견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맥락을 깨닫기 마련이다. 지난 2천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깨달을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재고하곤 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나간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관점이나 이해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이해력과 신학을 신뢰하여 그것을 우상처럼 믿곤 한다. 지금 우리는 동성애를 한 방향으로만 해석한다. 정죄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생활은 쉽지 않기에 크리스천들은 정죄와 방임 혹은 관여와 도피 사이에서 갈등한다. 혼란을 줄이려면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성경교사들은 생각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해석학이다. 크리스천의 고민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지만 그 흐름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겐 지혜롭게 싸워서 이기는 기술, 전략과 통찰이 필요하다. 낸시 피어시(Nancy Pearcey)는 『완전한 진리』에서 이것을 변증으로 이해한다. 그녀는 변증을 생존의 도구로 여긴다.

이론에 근거하지 않는 해석이란 없다

문학을 전공하면 교과목 중 문학비평을 한 번씩은 공부한다. 그저 좋은 시나 소설, 혹은 극작품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론을 배운다. 다들 처음엔 시큰둥하지만 라캉, 푸코, 데리다, 벤야민, 사이드, 스피박 같은 이론가들의 글을 읽다보면, 해석을 하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문학작품뿐 아니라 자기 안에 숨겨진 두려움이나 욕망을 어떻게 찾아내고 해석하고 대처하는 데도 도움을 받는다. 동성애를 다룬 대부분의 글들은 전문용어와 이론적 개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글들은 전문 학술지에 실리기에 크리스천들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읽지 않는다.

이론을 알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익할까? 이론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읽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론을 배우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시킬지, 영화나 TV 매체를 통해 다루어지는 동성애를 어떻게 시청할지,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 같은 사회적,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슈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론은 문학, 역사, 영화나 음악 같은 인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도구이며, 이것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통찰력과 지적 능력을 키워준다. 하나님은 인간을 해석하는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해석이 나온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다. 간통죄는 돌에 맞아 죽을 죄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신다. 대신 스스로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문둥병은 오늘날의 에이즈 같은, 저주 받은 질병이었다. 환자로 확인되는 순간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추방된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비참한 가운데 죽어간다.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스킨십을 하셨다. 그들이 무엇에 고통 하는가를 아셨기 때문이다. 저자의 의

도를 깨달을수록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

문학에서 가족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어느 사회건, 어느 시대이건 그 중심엔 가족이 있다. 그리스인들은 에로스란 이름으로 가족을 망가트렸다. 맑스주의자들은 진보란 이름으로 가족을 해체했다. 오늘날 게이들은 공감과 평등이란 이름으로 가족을 공격한다. 문제는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기독교의 행보가 언론과 미디어의 눈엔 동성애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다. 엘리엇 마군지(Elliott Magunje)는 짐바브웨 시인이다. 그는 2003년 에이즈로 사망했다. 그는 죽기 전 이런 시를 남겼다.

나에 대한 당신의 말은 불공평해요.
내 동료들에 대한 당신의 말도 의심스러워요.
당신은 거만스럽게 나를 궁핍하다고 불려요.
뭔가 해줄 듯이 나를 희생자라고 부르지만 ...
나 없이는 어떤 제안도 통과시키지 마세요.
나 없는 자리에선 아무 말도 말아요.

마군지가 이 시에서 의도한 상대는 에이즈 전문가들이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천들에 대한 대접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인권으로 되받는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종종 위축된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노예제나 인종 차별처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똑똑해 보이지만, 거룩한 삶이 주는 영광스런 비전은 보지 못한다. 이들은 의무나 거룩함이 아니라 인권과 존엄을 주장한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은 여기서 연유한 것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니체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는 걸 느낀다. 니체는 '신'이란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외쳤다. 당시 교회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지적 영토를 지키는 크리스천이 적었기 때문이다. 지금 '신은 죽었다'는 외침은 동성애 같은 문제로 바뀌었다. 이슈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기독교의 토대를 허무는 것이다. 교회가 동성애를 설교로 꾸짖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좀더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국제학술지에서 동성애 관련 논문들을 검색하다 가슴이 아팠다. 기독교 시각을 가진 논문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겐 염병을 막아줄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 너무 늦기 전에.



글 |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 쿿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죄사함”에 대한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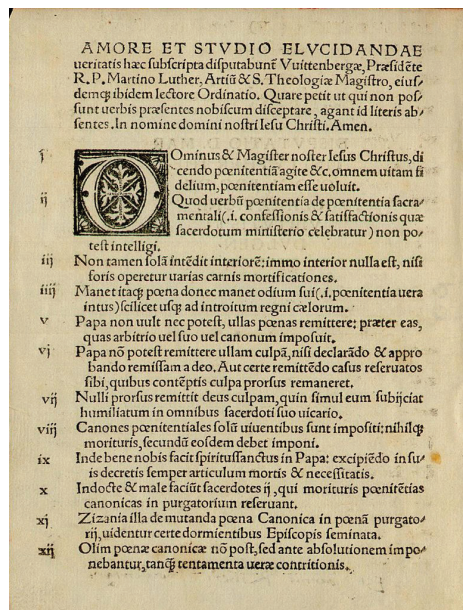
김현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에 우리는 수도사 루터를 개혁자 루터로 바꾼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루터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유럽 사회 전체가 바뀌었는데 그 추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사회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지난 500년 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다.

여러 관점들이 있지만 루터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루터가 죄와 씨름하였다는 사실이고, 또한 죄와 씨름하면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였다는 사실이다. 죄 사함의 복음을 발견한 그는, 면벌부로 '죄사함'을 가볍게 여긴 로마교회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루터의 95개조에서는 주로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면벌부를 비판한다. 몇 조문을 읽어 보자.

우리의 주님이자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생애 전체가 참회하는 삶이 되기를 요구하셨다. (1조)
연보함의 바닥에 돈이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 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에는

아무런 신적인 권위가 없다. (27조)
어떤 교회들에서 면벌부들이 설교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설교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황의 원수들이다. (53조)



1517년 뉘른베르크에서 출판된 95개조

죄 사함은 평생 지속되어야 할 일인데 면벌부를 구입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였다. 루터의 개혁은 죄 사함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에서는 '죄 사함'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사실을 중심으로 고백한다.

56문: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앞서 4-6주일에서 고백하였다. 사람이 짓는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업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11문)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나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15-18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결과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면벌부 판매상을 그린 목판화 (1521년)

않게" 하시는 것으로까지 연결된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죄악된 본성

죄 사함의 내용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죄악된 본성,' 이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자기의 죄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56문에서는 '나'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다.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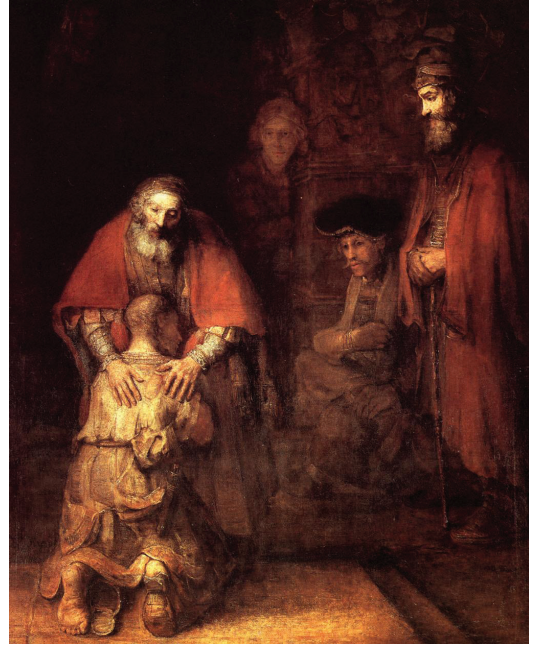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써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성도들과 거룩한 생활을 힘쓴다.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완전한 위치에 이를 수 없다. 원칙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났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일평생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한다. 선한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이다(롬 7:7-13).

‘사죄의 선포’와 ‘죄와 싸우는 일’은 함께 간다. 사죄만을 이야기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가르치지 않거나, 사죄의 선포가 없이 죄와의 투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의로 여기시지만(고후 5:21), 동시에 나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일평생 내 죄악된 본성과 더불어 싸우고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

기억하지 않고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심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뿐 아니라 ‘나의 죄악된 본성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그 안에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뿐 아니라 아직 내가 더불어 싸우고 있는 나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시간의 순서로 보자면 모순이 되는 말이다. 기억이라는 말은 과거의 일을 가리키는데, 내가 아직 살아야 할 기간이 남아 있고 또한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을 넘어서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서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앞으로의 죄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 1665)

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망과 힘을 주는 말씀이다. 나는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셔서 장래의 심판에서 내가 정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신다. 나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러한 비참한 데서 나를 건지시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생활을 힘쓸 수 있다. 주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은 오히려 더욱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싸워 나가게 될 뿐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조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와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니다. 마치 ‘삭제’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의 자료가 삭제되듯이,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억

의 창고에서 삭제하신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이러한 식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도 전과 기록이 다 사라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썬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마지막 날에 신자에 대한 심판은 없는 썬이 되고, 단지 불신자에 대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식의 사변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계 20:12) 받는다.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10-12. 참조. 고후 5:10).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면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이것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 즉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을 보시고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사죄와 의롭다 함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는 또한 이 땅에서부터 부족하나마 의를 행하며 살게 될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의에 대해서 상을 주지 않고 지나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그들이 형제라는 이유로 작은 선행을 한 자들에게 거기에 따라 상을 주실 것이다(마 25:40).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

귀와 썬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롬 2:7-8) 하실 것이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을 좀 더 깨어서 수행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근신하면서 사는 것이지, 사변적인 신학 체계 속에 안주하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모든 행위에는 죄와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만일 내가 행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다면 나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당장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마 7:21-23). 우리의 행한 것을 내놓는다면 정죄에 합당할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

‘교회 - 죄 사함 - 육신의 부활’의 순서

사도신경에서 죄 사함의 고백은 교회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나온다. '교회 - 죄 사함 - 육신의 부활'의 순서로 고백하는 것이다. 죄 사함의 고백이 교회에 대한 고백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때문이다. 교회가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심에 대하여 선포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죄 사함의 소식을 듣는 일도 죄 사함을 맛보는 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먼저 교회를 고백하고 이어서 죄 사함을 이야기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곳이다.

I believe in the Forgiveness of Sins

죄 사함 다음에 나오는 고백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다. 즉 죄 사함 다음의 고백은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죄 사함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된다. 이처럼 죄 사함은 세례를 받고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56문에서는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요약하였다.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죄의 문제는 교회에 들어올 때에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조금 추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면서 더불어 자신의 이름도 조금 내 보라고 권한다. 그러나 주님께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42문에서는 신자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신자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착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교회는 죄 사함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여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고백에 이어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의 순서로 신앙을 고백하였다. 존 칼빈은 그 순서를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하였다.

사도신경에서는 적절하게도
죄 사함이 교회를 고백한 다음에 나온다.
우리가 선지서에서 읽는 것처럼,
오직 교회에 속한 백성과 가족만이
이것을 얻는다 (사 33:14-24).
따라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일이
먼저 와야 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한자리를 차지하여서
그리로 오는 모든 사람의 불법을 사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평생 죄의 흔적들을
우리 주위에 짊어지고 살고 있으므로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교회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¹

1. 칼빈, 『기독교강요』, 4:1:20, 21.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루터의 도시를 가다

19

마르부르크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529년은 마르부르크 (Marburg) 대학이 세워진 지 2년이 지난 해였다. 그 해 필립공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지도자들을 모아 신앙 고백의 주요 신학적 논제를 논의하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독일의 루터파와 스위스의 개혁주의 파가 주동이 되었다. 그런

데 필립공의 의도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의견을 통일하여 구교도에 대한 저항 전선을 펴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해 10월 독일과 스위스 각처에서 지도자들이 모여들었다. 루터와 쾰리히를 위시하여, Ph. 멜랑크톤, M. 부처, J. 외코람파드, J. 슈투름, C. 헤디오, J. 요나 1세, A. 오시안드, J. 브렌츠, S. 아그리콜라 등이 그들이었다. 명실공히 종교개혁 시대를 대표하는 신앙지도자들이며 신학자들이었다. 그들이 다룬 주제는 성찬식에 관한 것이었다. 루터는 성찬식을 집행할 때 성찬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한다고 주장했고, 쾰리히리는 성찬은 신앙의 고백이며 기념이라고 이해했다. 이 논쟁은 해가 지나도 화해되지 못했는데, 필립공은 자신의 영토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 성찬론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기대했다. 신앙고백이 같아야 정치적으로도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처의 집념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찬론에 대한 두 개의 이견은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비록 루터와 쾰리히리는 거물급 개혁자들이 만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1529년의 마르부르크 종교회의는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행사가 되었지만 성찬에 대한 이해의 본질적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루터파와 개혁주의파 신학 논쟁은 끝내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다. 이 모임은 필립공으로 하여금 막강한 힘을 구축하게 했지만 루터파 독일로부터 스위스의 개혁주의파가 결별하는 아픔을 낳게 하였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루터는 종교회의가 만족스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렬되자 쾰리히리와 자신 사이에 놓여있던 탁자보를 가위로 잘랐다고 한다. 마르부르크 종교회의가 이루지 못한 연합은 나중에 독일 내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의 조직체인 슈말칼덴 동맹이 결성하게 될 때 스위스 개신교도들이 참여하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의 분열이 성경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니 역설적이라 아니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글 | 추태화 안영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VIEW를 추천합니다

VIEW는 저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며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세 자녀에게는 새로운 세상과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삶과 인식의 지평을 보다 넓히고 누릴 수 있는 보너스도 선사해 주었습니다. Lee Hollar 교수님의 <기독교세계관과 교육>은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교회, 학교, 부모가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함과 동시에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Harro Van Brummelen 교수님의 <기독교적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는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통찰력있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반 브루멜렌 교수님의 책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을 IVP를 통해 번역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겐 큰 축복이었습니다.

VIEW를 졸업하고 토론토에 이주하여 한인 이민교회를 8년간 담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목회와 설교 및 사역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여러 시도를 해 보았으며, 이 여정은 작년에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도 겨자씨처럼 작지만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기치아래,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공동체로서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여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여, 이 땅에 온전한 살롬을 확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용어가 성도들에겐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서 예수님의 핵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의 중심 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 용어로 익숙한 '살롬'-Nicholas Wolterstorff의 정의에 의하면, 살롬은 하나님, 개인, 공동체, 세상과 조화(정의)로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있는 응답적 삶을 강조합니다.

설교 사역은 성경과 구속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신자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갖도록 도우며,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인격, 가정, 일터, 마을, 세상 등)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인식과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생활신앙'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위한 사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을 세우는 사역,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 등을 전개합니다. VIEW 교육연구회 모임에서 함께 읽은 책에서 본 문구는 기독교 세계관적 삶과 목회를 추구하는 저에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망이 앞으로 이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동역자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글 | 이부형 목사

연세대 경제학과(BA),
합동신학대학원(M.Div),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졸업(MA), 토론토 기독교학문연구소(ICS) 수학
현재 교양제일교회 담임목사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제 13기(이론과정) 모집

오늘날의 세상은 미디어가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디어가 쏟아내는 메시지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대부분이기에 우리 사회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기독교미디어의 사명은 생명을 시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혼탁한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미디어는 사람입니다. 개인 미디어가 공중파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이 곧 언론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신앙의 기초와 기독교세계관으로 훈련된 여러분이 미디어의 현장을 누비게 된다면 세상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원장 조정민

2009년 3월 첫 개강식을 가진 아카데미는 국민일보, CTS, CGN-TV등 주요 기독교언론단체와 협력하여 미디어 영역에서 종사할 젊은이들에게 생생한 현장에서의 기술교육과 더불어 기독교세계관의 확립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미디어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론과 실기 2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론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실기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론과정>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 이론과정 기독교언론인이 갖추어야 할 기독교세계관과 언론인의 자세 등을 가르칩니다.
- 실기과정 사진촬영, 글쓰기, 기획, 동영상 촬영 등을 가르칩니다.

	목요일 (19:00 ~ 22:00)	토요일 (14:00 ~ 17:00)
10/12 ~ 11/30 (8주)	기독교 세계관 기초과정	기독교언론인의 자세와 미디어 기초과정
12/21 ~ 02/08 (8주)	기독교 세계관 응용과정	기독교 세계관 심화 과정

- 온라인접수 9월 1일 ~ 9월 27일
- 면 접 9월 28일(목), 30일(토)
- 발 표 10월 2일(월)
- 등록금납부 10월 2일 ~ 11일
- 개 강 10월 12일 (목), 14일(토)

이론 과정 강사진 (가나다순)

강진구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권순범 (前 KBS 기자, KBS 비즈니스 감사)
김관상 (CTS 사장)
김성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태항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성인경 (한국 라브리 대표)

신국원 (충신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前) MBC앵커
조성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조정민 (前 iMBC 대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원장)
추태화 (안양대 부총장, 기독교문학과 교수)
한정석 (PD, 前 KBS PD)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고 (2017년 7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1,100,000	인건비	일반급여	7,399,000		
	임원회비	910,000		기타급여	0		
	일반회비	6,060,000		소계	7,399,000		
	기관후원금	3,300,000		사무실임대료	880,000		
	월보구독료	724,000		사무실관리비	655,410		
	CTC후원금	140,000		통신비	61,800		
	학술지원금	1,000,000		우편료	2,200		
	VIEW후원금	320,000	소모품비	0			
	기타	132,000	식비	474,300			
	기타수입	소계	13,686,000	경상비	비품	0	
기타수입		0	복리후생비		1,227,090		
CUP매각급(분납)		400,000	퇴직연금		369,750		
예수금		646,590	회의비		409,020		
소계		1,046,590	교육비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회계용역비	275,000	
		학술지심사비	490,000		기타	222,299	
		학술지게재료	405,000		소계	4,576,869	
		학회행사수입	0		연구지원비	연구회연구지원	0
		학회기타수입	0			CTC후원금	169,450
소계	995,000	VIEW후원금	356,700				
소계	13,686,000	학술지원금	1,000,000				
소계	13,686,000	소계	1,526,15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5,200,230		
	CUP매각급(분납)	400,000		인쇄비	0		
	예수금	646,590		발송비	1,005,820		
	소계	1,046,590		소계	6,206,05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회홍보및기타	0		
	학술지심사비	490,000		학술지인쇄비	2,145,000		
	학술지게재료	405,000		학술지발송비	650,260		
	학회행사수입	0		학술지심사료	910,000		
	학회기타수입	0		학회기타	150,000		
소계	995,000	소계	3,855,260				
당월 수입액	15,727,590	당월 지출액	23,563,329				
전월 이월액	35,887,385	차월 이월액	28,051,646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정보고 (2017년 7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광고비	300,000	인건비	일반급여	900,000
	소계	300,000		기타급여	0
후원수입	후원비	1,700,000	제작비	소계	900,000
	소계	1,700,000		디자인비	913,000
기타수입	월드뷰 판매비	2,580,400	경상비	인쇄비	1,958,000
	월드뷰 추가판매비	2,619,830		소계	2,871,000
	기타수입	56,500		통신비	165,760
	예수금	75,190		소모품비	80,400
	소계	5,331,920		교통비	2,50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0	기타	식비	136,700
	미디어장학등록	0		회의비	79,600
	미디어기타수입	0		소계	464,960
	소계	0		세금	51,890
	소계	0		회계용역비	110,000
당월 수입액	7,331,920	당월 지출액	4,630,350		
전월 이월액	24,522,731	차월 이월액	27,224,301		

※ (주) 세상바로보기는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No. (2017년 7월 31일 마감)
Date

회원후원

3천 김*권 3천5백 Susanto *, 김*현, 김*휘, 김*현, 김*별, 김*별, 김*호, 김*주, 김*원, 김*우, 김*원, 박*희, 박*현, 박*근, 박*일, 생명의강, 손*일, 옥*천, 유*옥, 윤 *, 이*민, 장*수, 전*경, 장*열, 장*화, 조*진, 조*래, 주*탁, 지*순, 진*자, 최*진, 최*길, 하*실, 황*희 5천 강*웅, 공*건, 구*덕, 권*중, 권*연, 김*희, 김*웅, 김*현, 김*웅, 김*욱, 김*규, 김*찬, 김*택, 김*윤, 김*명, 김*심, 김*우, 김*영, 김*아, 김*창, 노*욱, 노*하, 민*기, 박*제, 박*룡, 박*규, 박*민, 범*철, 손*웅, 손*경, 송*민, 송*섭, 송*욱, 신*혁, 심*하, 안*희, 유*열, 유*숙, 유*선, 유*영, 이*미, 이*규, 이*수, 이*윤, 이*재, 이*화, 이*인, 이*홍, 이*미, 이*수, 이*혁, 이*숙, 임*연, 임*준, 임*숙, 장*일, 전*학, 전*진, 장*현, 조*아, 조*진, 최*수, 최*희, 최*태, 최*정, 한*현, 한*선, 홍*기 6천 구*형 7천 장*정, 조*주 7천5백 강*진, 고*섭, 김*실, 김*현, 김*욱, 김*우, 방*기, 임*윤, 이*우, 이*순, 전*식, 장*길 1만 David *, Lee * hee suk, 강*창, 강*정, 강*석, 강*정, 강*영, 고*현, 고*욱, 고*경, 고*재, 고*호, 곽*인, 구*희, 권*호, 권*규, 권*영, 권*범, 김*명, 김*식, 김*원, 김*호, 김*화, 김*은, 김*수, 김*욱, 김*배, 김*현, 김*현, 김*홍, 김*진, 김*형, 김*찬, 김*미, 김*성, 김*국, 김*철, 김*경, 김*수, 김*애, 김*범, 김*일, 김*경, 김*민, 김*은, 김*인, 김*진, 김*령, 김*중, 김*홍, 김*준, 김*호, 김*내, 김*람, 김*론, 김*호, 김*규, 김*숙, 김*호, 김*석, 김*권, 김*덕, 김*태, 김*혜, 김*해, 김*민, 김*정, 김*모, 김*준, 김*진, 김*호, 김*원, 김*영, 김*희, 김*훈, 김*곤, 김*민, 김*규, 김*성, 김*현, 김*수, 김*룡, 김*진, 김*민, 김 *, 김*정, 김*길, 김*철, 김*정, 김*섭, 김*숙, 김*숙, 나*훈, 나*수, 남*희, 남*우, 노*름, 노*숙, 리*환, 류*정, 류*호, 류*모, 마*호, 모*근, 모*문, 문*환, 문*성, 박*호, 박*연, 박*인, 박*현, 박*식, 박*한, 박*애, 박*호, 박*희, 박*호, 박*운, 박*성, 박*곤, 박*관, 박*주, 박*원, 박*원, 박*현, 박*모, 박*영, 박*진, 박*현, 박*규, 박*형, 박*우, 박*경, 박*민, 박*경, 박*주, 배*진, 배*론, 배*교, 배*연, 배*진, 백*은, 백*석, 백*준, 변*진,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행, 서*미, 서*연, 서*진, 성*진, 성*은, 소*화, 소*희, 손*규, 손*은, 손*나, 손*탁, 송*정, 송 *, 송*철, 송*상, 송*미, 신*규, 신*민, 신*형, 신*자, 신*디, 신*선, 신*웅, 신*정, 신*주, 신*기, 심*섭, 심*훈, 안*주, 안*석, 안*열, 안 *, 안*혁, 안*준, 양*건, 양*모, 양*영, 양*원, 양*석, 연*민, 오*호, 오*순, 우*학, 우*기, 유*호, 유*숙, 유*남, 유*성, 유*준, 유*원, 유*한, 유*덕, 유*민, 유*준, 유*희, 유*환, 유*은, 유*무, 유*원, 윤*근, 윤*심, 윤*선, 윤*현, 윤*자, 윤*근, 윤*림, 윤*석, 이 *, 이*숙, 이*연, 이*직, 이*심, 이*철, 이*현, 이*섭, 이*정, 이*훈, 이*훈, 이*등, 이*복, 이*현, 이*열, 이*수, 이*주, 이*근, 이*급, 이*수, 이*찬, 이*환, 이 *, 이*복, 이*미, 이*수, 이*일, 이*정, 이*연, 이*진, 이*엽, 이*영, 이*규, 이*경, 이*의, 이*한, 이*훈, 이*제, 이*준, 이*석, 이*재, 이*희, 이*기, 이*길, 이*일, 이*현, 이*국, 이*철, 이*환, 이*성, 이*섭, 이*숙, 이*연, 이*연, 이*영, 이*희, 이*길, 이*성, 이*리, 이*로, 이*진, 이*선, 이*일, 이*진, 이*진, 임*민, 임*진, 임*현, 임*복, 임*진, 임*택, 임*환, 임*섭, 임*연, 임*택, 임*영, 장*근, 장*기, 장*재, 장*화, 장*훈, 장*해(양*태), 장*숙, 장*열, 장*수, 장*수, 장*준, 전*희, 전*규, 전*수, 전*화, 전*양, 정*미, 정*식, 정*섭, 정*선, 정*준, 장*은, 장*수, 장*희, 장*현, 장*숙, 장*우, 장*규, 장*주, 장*영, 장*원, 제*규, 조*덕, 조*연, 조*하, 조*호, 조*희, 조*우, 조*현, 조*상, 조*주, 조*향, 조*수, 조*현, 조*춘, 조*웅, 조*지, 조*경, 조*선, 조*신, 조*영, 주*식, 차*준, 차*림, 최*열, 최*두, 최*호, 최*진, 최*영, 최 *, 최*수, 최*영, 최*정, 최*민, 최*우, 최*민, 최*식, 최*정, 최*경, 추*연, 태*숙, 하*만, 하*희, 하*진, 한*영, 한*영, 한*식, 한*진, 한*수, 허*아, 허 *, 허*영, 허 *, 현*건, 홍*호, 홍*화, 홍*원, 홍*호, 홍*식, 홍*인, 홍*호, 홍*철, 황*웅, 황*준, 황*한, 황*시, 황*경, 황*성, 황*정, 무*영 1만5천 김*화, 박*호, 박*진, 정*섭 2만 강*광, 김*광, 김*민, 김*원, 김*룡, 김*원, 문*윤, 문*영, 문*호, 박*진, 박*현, 박*주, 서*록, 손*욱, 손*민, 송*현, 신*범, 오*석, 오*나, 이*호, 이*형, 이*실, 이*철, 임*광, 임*욱, 정 *, 최*준, 추*화, 황*진 4만 김*울, 김*호, 류*린, 조*영 4만2천 열린교회 튼터던도서관 5만 김*락, 김*호, 박*식, 서*희, 윤*찬, 이*형, 이*직, 장*영, 전*국, 정*애, 최*일, 한*식, 현*자 6만 김*희 7만 최*연 8만 권*아 10만 박*은, 손*호, 송*규, 신*원, 윤*철, 전*식 12만 김*섭, 이*은, 최*일, 홍*모 15만 강*우 20만 채*현 36만 이*희 60만 양*훈

계 9,512,150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글로벌한가죽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빛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예심교회, 제자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한강중앙교회, 한림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5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버전

계 4,300,000원

월간 <월드뷰>

광고 및 개인후원

삼성전자, 기쁨병원, 기쁨병원 매점, 주님의십자가교회, 중앙대학교회, 흥성사, DCTY & SICA
김승욱, 김시호, 조성대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월드뷰> 후원계좌

국민은행 387201-01-121691 (예금주: 세상바로보기)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ORLDVIEW NEWS

[학술대회]

제34회 기독교학문학회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학문”

제34회 기독교학문학회가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학문”을 기조강연 주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논문 발표 신청을 받습니다.

- 일시 : 2017.11/4.(토) 10:00~18: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
-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학문

“대학원생 및 분과별 발표논문을 모집합니다.”

- 논문발표 신청 마감 : 9/23(금) 저녁 7시까지 홈페이지 신청
- 발표논문제출마감 : 10/13(금) 저녁 7시까지 기학연메일 제출
- 문의 02-3472-4967 (학회)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한국지부

VIEW와 관련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viewinkorea@gmail.com
- 문의 김성경 010-5154-4088 (VIEW 한국지부 행정실장)

[세계관 강좌]

기독교세계관학교는 18년 2월에 시작합니다

세계관 강좌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세계관동역회는 18년 2월에 “세상 살기”를 주제로 2018년 2월 2일간의 기독교세계관학교를 실시합니다. 3회째 준비되는 ‘기독교세계관학교’는 라브리과 공동주최로 진행며, 18년 2월 실시합니다. 작은 교회 수련회, 청년부 단체 및 개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 문의 02-754-8004 (세계관동역회)

* * *

9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9/14(목) 한국라브리공동체 협력 ‘기독교세계관학교’ 회의

9/29(금) 신앙과 학문 22권 3호 발행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이메일 info@worldview.or.kr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안전한 “국소마취 무인공막 탈장수술”

기쁨병원 자체 개발한 ‘최소절개 무인공막 탈장수술법’으로 20분만에 집도



103세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

개원 이래부터 현재(2017. 05. 30)까지 탈장수술 **12,136** 건 달성

기쁨병원은 국내최초로 탈장센터를 개설한 강윤식 원장이 통증과 재발을 획기적으로 줄인 새로운 국소마취 무인공막 탈장수술을 개발하여 국내 지방이나 해외 22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탈장전문 외과병원입니다.



정확 완벽 따뜻
기쁨병원

www.gipumhospital.com

서울 강남구 도곡로 122
(뱅뱅사거리 위치)

02)570-1234